

## 서울지방의 巫俗信仰 祭床차림을 통하여 본 食文化에 대한 考察

金尙實·黃慧性\*

대전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전 성균관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1988年 10月 15日 接受)

## A Study on the Sacrificial Rite Food of Korean Traditional Religion: Primitive Ethnic Religion

Kim Sang Bo, Hwang Hae Sung\*

*Dae Jeon Medical Junior College*

*\*College of Home Economics, Sung Kyun Kwan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5, 1988)

### Abstract

The sacrificial rite has its origin in the old China's primitive folkways faith based upon animism (B.C. 25c). From the animistic faith, Confucianism made its appearance in B.C. 551. Inevitably, the procedure of Confucian sacrificial rite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receding primitive faith. In Korean culture, the god of Chinese Confucianism introduced to Korea in A.D. 108 was mixed properly with that of Buddhism imported in A.D. 372.

Traditionally, Korean primitive religion (from B.C. 10c to B.C. 2c) was the sacrificial rite practiced by 'shaman.' The 'shaman' who was able to utilize ecstasy for the good of community was gods itself, and naturally the main form of the sacrificial rite was an exorcism with a sacrificial offering (food). After Korean primitive religion had been grafted to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 character of Korean culture had to become compound.

The most essential conception in sacrificial rite is a discrimination of a ghost, one is the evil spirit and the other is the good spirit.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the good spirit is a spirit which ascended to heaven, in contrast, the evil spirit is a one which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dispersed into this world. The sacrificial rite is a method to help the evil spirit ascend to heaven or to prevent harms from it. The mode of sacrificial rite especially the dead ancestor worship wa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a purpose of the wealth and honors of descendants. Descendants believed that the evil spirit would not harm them only after receiving sufficient food and the right sacrifice. As a result, the sacrificial rite food was the sign of filial piety and a compensation for the evil spirit.

How did the Korean religious culture which was consisted of three different religions-Shamanism, Buddhism, Confucianism-be combined and transformed? The author focused the mixture and transformation of the procedure of sacrificial rite and the arrangement of sacrificial food in each religion. In this thesis, the author studied first, the conception in sacrificial rite, second, the items of sacrificial rite food according to each period. In consequence of the research, each religion had lost its uniqueness and became mixed to each other and settle down in Korean culture.

## I. 緒 論

慣習은 한 집단의 거의 모든 成員에 의하여 傳統的으로 손수되는 行動 樣式이다. 韓國의 慣習의 歷史를 살펴보면, 건국 이래 5000년 동안에 Shamanism계의 原始文化, 佛敎文化, 儒敎文化 등이 큰 潮流를 이루어 흐르는 가운데 지금에 이르렀다.

이러한 宗教文化 傳來의 歷史는 그 나름대로 韓國의 宗教로서 구축하기 위해 土着化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 土着化의 樣相은 各 宗教가 갖는 祭祀라는 儀禮를 通하여 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各 宗教가 發展 布敎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점차 同一意識의 褶合을 낳았고 이러한 同一意識의 褶合은 同一鬼靈觀을 파생하였으며 이 同一鬼靈觀에 의한 祭祀文化는 複合文化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韓國民의 各 宗教가 갖는 祭祀觀은 一律的으로 孝와 관련되어 형성되었으나 鬼神으로부터의 보상과도 관련되어져 祭祀時의 最大의 음식대접은 最上의 孝 및 보상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祭祀文化中의 祭食物文化가 차지하는 위치 또한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祭祀食物文化는 “最上의 대접”이라는 觀念과 관련되어져, 그 社會의 生活程度 및 食物文化를 最大限으로 반영해주는 要素도 되고 있으며, 現存하는 祭床차림은 古來로부터의 傳來를 바탕으로 하고 다시 他文化와의 褶合인 관계로 祭祀床차림의 複合文化의 要素는 信仰意識, 同一鬼靈觀과 아울러 巫敎, 佛敎, 儒敎의 複合의 文化로서 형성되었고 또한 이와같은 祭物을 기초로 한 祭祀 儀式도 같은 결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論文은 서울지방의 巫俗信仰의 祭祀床차림을 통하여 그 褶合된 상태를 觀察하고 祭祀物目을 調査하여 韓國食生活 文化 形態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巫·佛·儒의 同一鬼神觀

原來 韓國의 原始宗教는 祖上을 動物 또는 植物로 認定하여 人間과 動物 植物과의 血統關係를 인정하는 totemism과 죽음으로 인하여 떨어진 영혼을 초人間的인 힘을 가진 것으로 숭배하여 精靈이나 靈鬼를 認定함으로써 이 神靈은 모든 物體에 있다고 믿는 萬物有神觀의 animism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sup>1)24-28</sup> 그러므로 이 神은 生物의 생성이나 吉凶禍福에 作用한다고 믿음으로서 供物을 올려 祭祀를 통하여 기도를 드렸고 이러한 意識構造 속에서의 祭祀는 韓國 土俗信仰으로서 祖靈信仰의 형태로 발달을 보게 되어 狹道(風流道) 혹은 狹道(風月道)임과 이 狹道(風流道)가 老子의 仙道 혹은 道敎와 석가의 佛道 혹은 佛敎와 孔子의 儒道 혹은 儒

敎의 根本이치를 통일한 根源으로서 儒佛道의 根本思想과 일치할 수 있는 思想이 되었다.<sup>2)201-202</sup>

祭祀의 對象은 鬼神으로 볼 수가 있는데 上古人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肉體로부터 靈魂이 分離되는 것이라 믿어 肉體의인 動作은 없으나 靈魂의 힘은 人間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祭祀를 통하여 죽은이와 산사람과는 연결되며 관계한다고 생각했다.<sup>3)241-242</sup>

祭祀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이의 영혼과 만나는 것이며 죽은이를 대접하는 하나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효성의 表現 및 죽은이의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함으로써 最上의 음식대접은 最上의 효성 및 보상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자손들의 영화를 누리하고자 무단히 음식을 공급하였다.

죽음이란 現象은 惡鬼에 의한 것으로서도<sup>4)377</sup> 간주되어 죽음을 피하기 위한 禳鬼法도 이미 濛에서도 있었거니와 原始社會의 神에 대한 觀念은 惡鬼 良鬼(evil spirit, good spirit)로서 觀念하여 질병 죽음 등 온갖 禍根이 되는 惡靈과 惡神을 驅逐해내는 方法이 祭祀와 더불어 생김으로서 제사의 범주는 더 커졌으며 이러한 惡靈에 對하여 追敬 愛慕<sup>5)34</sup> 恐怖의<sup>6)5</sup> 宗教의 감각을 느끼게 되어 宗教의 二元論(religious dualism)에 입각하여 善靈과 惡靈의 觀念을 가지고 善靈의 神에게는 숭배로서 惡靈의 鬼에게는 “적대적 방법 타협적 방법 依他的 방법 嫌忌의 방법”<sup>4)380-381</sup> 또는 壓勝 呪術 祓禳 祈禱로서 재앙이나 질병을 퇴치하고 언제나 福을 누리려 하였다.

어째든 祭祀는 文化的 轉位(metaxis)에 의하여 도의화된 하나의 생활규범이 되어 오늘날 道德的 觀念을 이루게 되었듯이<sup>6)5</sup> 上古時代의 原始宗教의 神觀에서 발생한 祭祀로부터 그 後의 佛敎 儒敎의 祭祀는 일률적으로 죽은 사람을 공경하여 이것을 孝라는 思想과 직결시키고 자손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目的으로는 한결같은 공통성을 가지고 내려왔다.

中國의 儒敎 發生은 B. C 551年頃이며<sup>7)1010</sup> B. C 760年頃 春秋全國時代에 老巫女가 十人의 女弟子를 기르고 있었던 事實과,<sup>8)277</sup> B. C 2500年頃 中國의 황화文明이 시작될 때에는 이미 中國에 祭祀가 있었던 事實에서,<sup>9)14</sup> animism을 근거로 한 中國原始的 土俗信仰이 생겼으며 이러한 animism을 바탕으로 한 信仰意識 속에서 B. C 551年頃 孔子가, B. C 372年頃 孟子가 탄생되어 儒敎라는 새로운 宗教가 파생될 때까지는 그 儀式構造에는 土俗의 信仰을 기초로 하여 발전시켰다는 추리는 너무도 당연하며 이 中國의 儒敎는 다시 韓國으로 들어와 韓國民族의 전통적인 神의 觀念으로 孔子의 主宰의 運命的인 神(天)과 孟子의 義理的인 神(天)과 董

仲舒의 陰陽五行的인 神(天)과 程朱의 原理의인 神(天)을 그때그때 적절히 化合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sup>10:149</sup> 즉 韓國 土俗의 良鬼 惡鬼의 觀念에 孔子 孟子의 神의 觀念과 漢代(B, C 200年頃)의 董仲舒의 陰陽이 합해져서(우리나라에 儒敎가 들어온 것은 적어도 B, C 108年頃 漢武帝가 四郡을 두었을 때부터라 한다).<sup>10:175</sup> 系合되어 이미 上代人들에게 陰陽의 개념이 있어서 辰韓에서는 死者 즉 靈魂의 昇天觀念을 가지고 靈魂의 地上的 浮散을 忌하였다.<sup>4:377</sup> 이와같은 靈魂의 昇天觀念은 “저승은 하늘에 있다”는 古代人의 神觀으로서 慶州市皇南洞 155號古墳遺物函에서 나온 新羅白馬圖를 보아도 알 수 있다.<sup>11</sup>

儒學人의 鬼靈觀을 보면 “死와 生은 一이면서 二요 二면서 一이다”<sup>11:12:404</sup>라고 하는 死와 生을 일치시킴으로서 人間의 영원성과, 人과 鬼가 그 性情에 있어 同一하다는 觀念을 보여준다. 즉 人間은 氣(魂)와 形(魄)이 合하여 生하고 氣와 形이 분리되면 死로 歸<sup>12:405</sup>하는데 魂(氣, 陽神)은 天(陽)에 形(魄, 陰神)은 地(陰)에 歸하여 영원히 生存하며 陽氣의 精靈은 魂, 陰氣의 精靈은 魄으로, 죽음이란 陽氣의 浮散으로 昇天을 의미하는 바 昇天한 氣는 神明이 되나 生時에 怨恨이나 未練을 잊지 못한 때에는 死後에 陽氣가 昇天하지 못하고 陰氣가 되어 人間生活에 造化를 부리는 鬼神으로서 나타난다는 陰陽說에 의한 鬼神觀으로서, 이는 韓國原始宗教와도 통하는 觀念이다. 分散되어 흩어져 있는 魂魄은 祭祀時에 合魂魄하여 죽기前의 生時 때와 같이 서로 合해져서 祭祀동안이나마 일시적 更補를 얻어 가지고 (Revisiscentia momentanca) 祭祀의 供物을 즐기며 魂魄의 居所가 안정되면 後孫에게 福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人間에게 벌을 준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sup>6:11-12</sup> 죽은 사람의 魂은 떠돌아 다니다가 祭祀로서 餽養을 충분히 받은 후라야 오랫동안 그 殘生을 존속하고 그렇지 않은 魂은 祭祀가 이미 끊어졌으므로 주람에 못이겨 죽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자신의 能力이 무능하므로 주려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오직 살아있는 後孫의 祭祀 연속기간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sup>13:156</sup> 또한 靈魂은 日月山川 動物 植物 鑛物내지 衣食住에까지 接觸되어 삼라만상 어디에도 깃들고 있어, 人間이 安心人命을 유지하려면 이 영혼을 숭배하고 만사를 靈魂에 의탁하여야 한다는 原始的 思考로부터 發生된 animism을 바탕으로 한 原始宗教的 觀念에 기초를 두고 있다.<sup>2:219</sup>

이러한 原始宗教的 觀念은 中國 上代의 儒學者들의 鬼神觀에도 볼 수 있는데 鬼神에 대하여 “거룩하여서 알 수 없는 것이다”<sup>9:13</sup> 지극히 變化가 많아서 萬物을 神妙하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가 없

다.<sup>9:13</sup> 또는 “天神이 萬物을 만들었다. 日光이나 雨露 등으로 萬爲를 感化케 했다”<sup>9:13</sup> 등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단 이러한 表現은 中國의 儒學者 뿐 아니라 이것은 韓國 儒學人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李朝儒學人들의 鬼靈觀이기도 하여서<sup>2:219</sup> 儒學人의 信仰心意는 多靈 숭배로서 神人의 共生觀等 土俗的 靈魂觀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14:252</sup>

A, D 382年 고구려에, A, D 384年 백제에, A, D 528年 新羅에 각각 佛敎가 수입된 이후 上代人들은 自然發生的인 神의 觀念으로서 佛敎의 帝積天을 흡수하여<sup>10:176</sup> 韓國的 佛敎로 土着化시켰다.

佛敎가 갖는 上代의 鬼靈觀을 예로 들어보면, 新羅 제 25代 眞智王의 死魂과 桃花女와의 사이에 생긴 鼻刺은 鬼를 거느리고 神元寺의 北梁에 石橋를 놓았다 하는 것과 鬼인 吉達은 興輪寺에 樓門을 지었다 하며 또한 僧 法敏은 늘 海龍이 되어 護國할 것을 念願하여 死後 東海의 龍王이 되었는데 다음 임금인 神文王이 感息寺를 創立한 것을 고맙게 여기고 萬波息笛란 珍寶를 바쳤다고 하는 것으로서<sup>4:112</sup> 이미 三國時代에 佛敎는 民間의 鬼神을 받아들여 吸收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佛敎의 기본 교리인 오직 한길로만으로는 인도할 수 없었던<sup>15:162</sup> 佛敎는 善行受福으로서의 佛敎 또는 因果的 敎理로서의 佛敎로 吸收되어<sup>16:184</sup> 神과 극락왕생의 觀念과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극락의 十代王 使者의 개념은 다분히 神的인 存在이며 神을 認定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七星神계 공양을 드릴 때의 七星請中 七星을 請하여 공양을 드리는 由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神을 역시 인정하였다.<sup>15:151</sup> 佛敎祭中 49祭는 방언이 극락왕생을 함으로써 後孫들에게 영화를 가지다 준다고 믿음으로서<sup>15:165</sup> 原始信仰 및 儒敎의 祭祀觀과도 일치되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 III. 祭物의 起源 및 民俗的의 意味

上代人은 自然의 모든 현상이 신비감과 두려움의 對象이었다. 이러한 自然의 현상은 어떤 神的인 能力에 의하여 規制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上代人은 自然의 현상을 支配하는 神的인 存在에 의지하여 福을 받고 禍를 면해주기를 祈願하였다. 이러한 祈願에서 나온 소박한 意識은 祭祀形態로 발달되어 오늘날의 儒敎祭禮, 여러가지굿, 山神祭, 佛供, 고사 등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上代人부터 現代人의 祭祀觀은 祭祀時의 祭物에 잘 반영되고 있고, 오늘날 西歐文明의 빠른 받아들임 속에서도 民衆들은 祭만은 꼭 지키고 있으며<sup>17:107</sup> 아무리 꺼

니를 걸를 정도로 못사는 집이라도 祭지낼 때만은 最大限의 돈을 들여 祭物을 장만한다. 그것은 “모든 鬼神은 먹으면 먹은 값하고 못먹으면 못먹은 값을 한다”<sup>18:141</sup>고 하는 것을 기초관념으로 하여 最大限의 음식대접은 最上の 효성 및 最上の 보상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지금까지 일관되어 왔다.

가까운 예로서 李朝의 王家에서는 年間 720회에 달하는 제사를 지냈고<sup>9:12</sup> 이 祭를 위한 祭物차림으로 인하여 結局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니<sup>9:12</sup> 祭物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祭祀時의 設床은 대개 古禮를 따라 設床되는 것이 法으로<sup>9:36</sup>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의 慣習으로 定義를 내릴 수도 있다. 慣習의 歷史는 上代의 文化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때로는 現存속에서도 그의 原型을 남기는 수가 종종있다.<sup>19:639</sup> 儒式祭祀건, 佛式 또는 巫式 祭祀건간에 現存하는 祭床차림은 古代로부터의 傳來를 바탕으로 하고 다시 他文化와의 摻合이다. 이러한 慣習의 定義 밑에서 祭物의 기원을 따져 올라갈 수가 있다. 예를들면 儒式床차림의 主祭物은 胙 淸酒 餅(절편, 인절미) 炙 脯라던가, 巫式床차림의 主祭物은 餅(백설기, 팔편), 탁주, 달걀, 문어, 전복, 송어, 다시마, 통복어, 쑥, 팔이라던가, 佛式床차림의 主祭物은 油蜜果, 果實, 茶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床차림의 기원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床차림을 차리게끔 된 民衆의 祭物에 대한 精神은 어떠한가 등을 밝혀보는 것은 커다란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信仰의인것 보다는 祭物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서민의 意識構造며 우리 자신의 生活思想이기 때문이다.

祭床차림이 차려진 유래는 B, C 23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檀君의 아들 부루가 檀君을 祭하는 것으로부터 祭祀가 생겼다는 기록도 종종 나타나나 하나의 神話의인 면에서 肯定도 否定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文獻上에 나타나는 最初의 祭의 由來는 扶餘, 韓 등의 부족국가의 季節祭로서 이 祭는 供犧를 수반하는 飲福의 饗宴이었다 하는 바<sup>19:746</sup> 여기서 食物史의인 면에서 祭物을 추측할 수 있다. 供犧이면 돼지, 노루, 닭 등의 하나이고<sup>20:203</sup> 당시 농경국으로서 北韓에서는 B, C 6, 7 세기경 南韓에서는 B, C 1, 2세기경에 黍稷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아 수수떡이 있었고,<sup>20:202,205</sup> 탁주가 있었으며,<sup>20:204</sup> 채집이 가능했던 비자, 잣, 밤, 대추,<sup>20:204</sup> 전복, 백합, 홍합, 게 등과 다시마, 미역, 도미,<sup>20:198,200</sup> 달걀이었다. 즉 胙, 酒, 餅, 果, 魚貝類, 생선, 달걀, 다시마, 미역 등 現存의 祭物의 物目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부족국가 이후 三國이 정립되고 쌀과 팥이 A, D 3, 4세기경에<sup>20:207</sup> 韓國에 보편화되면서 음식은 더욱 多樣하여 졌다. 調理面에서도 發達을 보아 밥짓기가 실시되고<sup>20:207</sup> 팥의 보급으로 팥으로 만든 팔편과 시루편이 만들어 졌다.<sup>20:208</sup> A, D 6, 7세기경에는 油 蜜 醬 豉 脯 醢 등의 저장성 食物이 있었고 무우가 이때에 中國으로부터 傳來되었다.<sup>20:212</sup> 이때에는 魚物도 다양해져 웅어 새우 조기 乾文魚 다시마 새우가 있었다.<sup>20:211</sup> 윤석석 교수는 韓國食品 구조의 確立을 A, D 6, 7세기頃으로 본다고 하였거니와<sup>20</sup> 역시 현재의 祭物의 전설도 이때에 確立되었다. 그 후 A, D 8세기경 佛敎의 전래와 함께 茶가 이땅에 보급되어 茶는 佛敎의 음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佛敎는 食文化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니 그것은 茶食과 油蜜果의 보급이다. 茶食과 油蜜果는 고려에 米穀의 풍부와 함께 더욱 번성되어 연등회 팔관회 祭享 饗宴같은 때는 반듯이 油蜜果床이 차려졌고 특히 王公 貴族 寺院에서 성행하였다.<sup>21:22-25</sup> 茶와 茶食과 油蜜果는 完全 佛敎음식이 되어 韓國 食物文化에 한자리를 차지하였다. 고려朝는 자비思想을 根本으로 하여 살생을 禁함으로서 肉食이 절제되었고 따라서 胙 대신 茶油蜜果 茶食 餅類가 가장 번다한 식품이 되었다. 고려末에는 또한 사탕 두부 후추가 원으로부터 전래됨으로서 現在 보이는 食品의 기초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으며 이것이 朝鮮에 들어서면서 多樣해졌다.<sup>20:224-226</sup> 현재 보이는 佛敎의 祭床차림은 食物史의인 면에서 볼 때 적어도 고려末에는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생각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佛敎의 祭物은 韓國土俗祭物의 기초위에 中國式 佛敎의 儀禮가 摻合하여 조직화되었다. 性理學은 李朝에 들어와 발달을 보았고 李朝에서는 國初에 敎令으로 士大夫家에 朱子家禮에 의한 儒式祭를 드리도록 命함으로서<sup>9:21</sup> 儒祭物은 확립되었다. 따라서 儒祭物은 李朝初의 食物文化를 기초로 하여 朱子家禮에 의거한 儒式 祭床차림의 기준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佛敎 祭床차림은 좀더 조직화되고 儀禮化된 祭床차림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祭祀飲食物에 대하여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巫俗의 祭床차림의 物目은 A, D 6, 7세기경에 확립되고 그 物目은 백설기 팔편 달걀 미역 다시마 전복 홍합 탁주 문어 복어 조기 비자 잣 밤 대추 胙 등이 다. 둘째, 佛敎의 傳來와 함께 茶 茶食 油蜜果가 보급되었고 이것은 佛敎 祭床차림에 主格이 되었으며 셋째, 佛敎의 祭床차림은 李朝初의 食物文化위에 세워졌으므로 그 物目은 多樣하고 調理法 또한 차원이 높아 獻物은 절편 인절미 炙 脯 淸酒 羹 채소류 등으로 이룬다.

#### IV. 巫俗信仰을 통하여 본 祭床차림

##### 1. 1800年代의 床차림

李朝時代의 巫祭食物文化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그것은 1825年 또는 1885年으로 추측되는 年代에 蘭谷에 의하여 기록된 巫祭床차림과 1886年의 온산 松岳 別祈禱를 위하여 쓰여진 巫祭物目, 1889年 민비가 순종과 고종을 위한 祈禱에 소용된 物目, 그리고 역시 年代未詳인 민비의 위축에 소용된 巫祭物目이 그것이다. 1825年이나 1886年, 1889年, 年代未詳의 各 祭祀는 그 對象神이 다르기 때문에 바쳐지는 祭物 또한 각각각색이어서 李朝의 巫祭物目 比較 考察은 사실상 힘든 과제이다. 즉 1825年의 祭祀 目的은 季節祭 또는 祖上祭이고<sup>22</sup> 1886年의 祭祀 目的은 국가사직을 위한 山祭굿이었다.<sup>23:57</sup> 1889年은 析子와 수명장수를 위한 祭이었고, 年代未詳인 민비의 爲祝 또한 祈子나 壽命長壽를 위한 祭이었다.<sup>23:66-67</sup>

그러나 李朝時代의 祭物目은 보편적인 巫祭物을 제시해준다. 다음에 論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이고도 구체적인 巫祭物의 物目이 現代의 巫祭物의 物目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데 있고 또한 전통적인 巫祭物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現 祭物의 觀察은 서울 인왕산에 있는 國師堂이 서울 國의 代表處라고 보고 國師堂의 祭物을 資料로 하였음을 미리 알려둔다. 왜냐하면 國師堂은 李朝의 발기상에도 나타나는 나라곳의 致祭處<sup>37:204</sup>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 1) 蘭谷의 巫堂內歷上에<sup>24</sup> 나타난 祭床차림

巫堂內歷에 기재된 巫祭物目은 後에 기술할 발기에 나타난 物目보다 좀더 구체적인 資料를 제시하여 준다. 그러나 著者인 蘭谷은 집필할 당시 祭床보다는 巫服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길은 없다. 당시의 祭는 현재 서울지방에서 보이는 祭와 흡사하며 열두거리로서 祖上祭나 季節祭를<sup>22:59</sup> 目的으로 行하던, 巫堂이 主祭한 國의 형식이다. 巫堂內歷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에 의한 祭次는 感應講陪, 帝釋거리, 別星거리, 大거리, 戶口거리, 祖上거리, 萬神萬明거리, 神將거리, 唱婦거리, 軍雄, 뒷전으로 現 서울지방의 열두거리 祭와 비슷하다.

祭物床은 이 열두거리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感應講陪, 帝釋거리, 別星거리, 大巨里, 戶口巨里, 뒷전에만 보일 뿐이다. 여기 그 祭物床을 現 床차림과 비교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感應講陪床

感應講陪는 당시 國 祭次의 첫번째 儀式으로서 “神을 초빙하기 위한 儀式”<sup>22:61</sup>으로 오늘날 가망거리와 일치



사진 1. 感應講陪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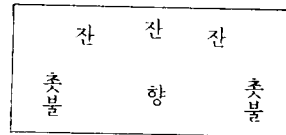


그림 1.

되며 床차림 또한 同--하다. 사진 1 및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잔이 3잔인 것은 現 講陪거리 巫歌에서 “초가망이 아니시냐 이가망이 아니시냐 조라삼가망이 아니시냐...”라 한다. 따라서 초가망, 이가망, 삼가망을 위한 술 3잔으로 볼 수가 있는데 초가망은 先代神 이가망은 後代神 삼가망은 現神으로서 先神 後神 現神을 위한 술 3잔으로 풀이된다. 곧 서울 巫俗에 있어서는 3代 奉祀를 하는 格이다. 좁은 원래 “道家의 風”<sup>9:73</sup>인데 이것이 儒 佛 巫에 다 褶合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향을 피우는 目的은 “香氣를 空中에 올려 보내어 陽神을 下降”<sup>9:73</sup>케하는 意味라 한다.

촛불을 키는 것은 어떤 宗教의 祭祀건간에 공통적이다. 佛家의 祭祀에 있어서 “촛불공양”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촛불이라는 것은 神의 길을 밝혀준과 同時에 神의 은총을 받아 환한 世上에 되게 하여 달라는 正성과 기도의 意味라 하겠다.

##### (나) 帝釋거리床

帝釋거리는 現 巫祭에서도 보통 祭일 경우 主格을 차지하는 거리이다. 帝釋이란 원래 佛敎의 33天의 天主로 貧窮한 賤에게 財福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巫에 褶合되어 나타난 祭次로 볼 수 있다. 帝釋神은 “수명장수, 財福, 農耕의 豐作, 祈子의 神”<sup>22:63</sup>으로 간주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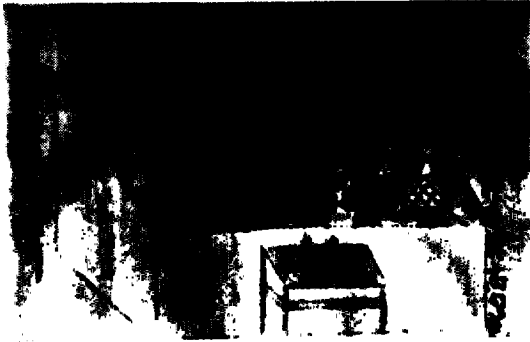


사진 2. 帝釋床

		숫팔년꽃					
증편	증편	증편	증편	증편	증편	증편	증편
茶水	茶水	茶水	茶水	茶水	茶水	茶水	茶水
춧대	산자	약과	배	감	계면떡	춧대	춧대

그림 2.

“水神 龍神 七星神”<sup>23,60</sup>과도 통한다. 그중에서도 祈子로서의 産神의 觀念과 祖上神으로서의 帝釋神의 觀念도 강하다. 흔히 전해 내려오는 말로 대함제석, 불사제석, 백황제석, 진동제석, 열바가지닝쿨제석으로서 文武, 僧, 魚, 古財, 農家의 祖上으로 表現되기도 한다. 사진 2에 나타난 床차림을 보면 증편이 3器, 茶水 7器, 산자 1器, 약과 1器, 배 1器, 감 1器, 계면떡 1器, 춧돌, 향이 놓여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帝釋床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점이 없었다. 한가지 특징은 佛敎의 영향으로 이 床차림에만은 고기를 안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物目別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사진 2, 그림 2).

① 숫팔년꽃

현 巫祭에 있어서 主되는 床마다 主祭物(主로餅)에 꽃혀있는데 다분히 佛敎的 색채가 농후한 꽃이다(後記 함).

② 증편

現 巫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떡으로서 十大王, 帝釋等 불가와 관계되는 最高의 神(巫覡들 자신이 崇奉하는 가장 最高의 神이기도 하다)에게 바치는 떡이며 백설기餅과 쌍병을 이루는 가장 주된 獻物이다. 인왕산의 國師堂에서 觀察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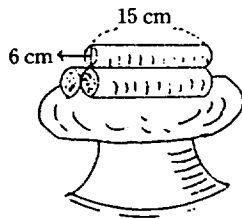


그림 3. 증편

에 의하면 지름 6cm, 길이 15cm의 원주형으로서 백미를 가루로 하여 시루에 찐다음 떡베에 쳐서 빚어 만들었다. 한가지 特記해야 될 것은 1800年代의 증편이나 오늘날의 증편이나 크기는 모르되 모양과 個數는 변함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事實이다. 현 帝釋床에서와 마찬가지로 3器에 각각 3個씩 담았는데 3個씩 담은 것은 흔히 말하는 韓國人의 3의 觀念으로 “ 많다”<sup>4,348</sup>는 意味가 아닐까. 이증편에 대한 意識을 調査한 바에 의하면 이지산\* 氏는 文書化한 떡으로서 帝釋님 또는 十大王께 오늘의 帝獻物을 報告드리는 일종의 報告書의 역할이 있다고 하였다(그림 3).

③ 茶水

7잔의 茶水가 床에 陳設된 것으로 보아 당시 이미 七星神과 帝釋神을 同格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七星은 人間의 命福을 맡아 있다고 하여 道敎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원래 北斗七星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民間信仰化되었다.<sup>15,162</sup> 佛敎도 이七星을 포섭하여 壽命長壽를 위한 目的으로 信仰형태로 발달을 보아 七星閣을 모시고 있다.

④ 계면떡

現 祭에서 이 떡은 福을 주는 意味가 있는 떡이다. 창부거리가 끝나갈 무렵에 무당은 어 떡을 굿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만일 짝수로 집혀져서 받았을 경우 “神이 정성을 잘 받았음을 상징하고” 홀수로 집혀져서 받았을 경우 “神이 오늘의 정성을 잘못 받았음을 상징하므로” 巫堂은 이를 밝혀낸다. 굿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떡을 먹으면 福을 받는다고 하여 너도나도 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의 材料는 역시 백미로서 증편을 빚고 남은 찌꺼기(모서리를 잘라 낸 것들)를 먹지않고(먹으면 큰일난다고 함) 각각 면을 5cm쯤 되게 마름모꼴로 만들어 床에 놓는데 이는 民家의 祭物 觀念, 神觀念 등 소박한 意識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사진상에 나타난 모양과 색깔(白色)로 보아서 계면떡이라고 단정하였다.

⑤ 油蜜果

現 말미거리 巫歌에도 나오듯이 “홍모란 홍산자 백산자 뉴밀과 대택이요...”라 한다. 油蜜果 기타 造果類는 그 역사가 이미 佛敎의 傳來後로 佛敎의 식품으로서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李朝朝에는 이 油蜜果는 祭祀의 음식으로 반듯이 끼었다.<sup>21,23</sup> 당시 이 油蜜果를 씹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역시 巫祭物의 佛敎化로서 이미 祭物目에 빠질 수 없는 위치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상에 나타난 유밀과는 산자와 약과로서 약과는 현재 동그랗게 만들어 쓰고 있으나 李朝代에는 고이기 위함을 目的으로 각이지게 하였다<sup>21,23</sup>함으로 그 모양과

\* 李芝山: 國師堂主巫(男子). 옛날에는 두루말이紙에 글을 썼으므로 이 餅의 상징은 두루말이紙로서의 報告書라 함.

색깔(붉은색)로 보아 약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혹 어떤 이는 팔시루편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帝釋床에는 팔편을 놓지않고 백편을 놓음으로 약과임이 確實하다. 사진상에 나타난 산자류는 그 色이 白色 분홍색 붉은색으로서 홍산자 백산자가 고임의 형태로 設床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⑥ 배, 감

연파랑색과 짙은 붉은색의 원형인 것으로 보아 배와 감으로 생각되는데 儒式의 紅東白西의 法則에 따라 진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現 帝釋床차림과의 비교

巫堂內歷에 기재된 帝釋床차림과 비교했을 때 現 帝釋床에는(사진 3, 그림 4) 백설기편, 모두부, 호추차, 계피차, 대추차, 백미, 다시마튀각이 더 진설되었다. 이는 前術한 바 있듯이 蘭谷이 집필할 당시 祭床보다는 巫服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았나 생각



사진 3. 1974. 9. 3. 觀察 帝釋床 國師堂

되며 혹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하면 경비의 多少에 따라 物目이 적었음이 아닐까. 또한 現 祭床의 모두부 다시마 튀각 같은 것은 佛敎祭床에는 안듯이 진설되는 것으로서 1800年代와 現代의 祭物目에 있어서 佛敎와의 褶合 상태가 비교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祭祀 物目的의 差異에 대하여 비교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호추차 대추차 계피차

現 帝釋床에 호추차 대추차 계피차를 씌은 三聖\* 에 대한 대접의 의미가 있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帝釋거리가 佛敎에서 파생된 祭次로서 巫堂內歷에서도 나타나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佛敎의 色彩가 농후하다.

佛家에서는 살생금지로서 肉類를 절대로 쓰지 않는 대신 茶供養을 드림으로서 致祭를 한다. 이러한 佛敎의 思想의 영향으로 파생하여 巫歌에도 “삼신제석 자부신 자비 호초삼잔 이슬맺소 호초차, 계피차, 대추차이오나 황울차라도 드시라오”라 한다. 帝釋床에 호초차, 대추차, 계피차 등이 쓰임은 근래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적어도 “열두거리가 형성된 고려말”<sup>3:180</sup>로 보는데 坐堂內歷에 이러한 茶가 안보임은 당시 七星과 三神을 同格으로 취급되어 나타난 현상인 듯하다. 호추차, 대추차, 계피차는 佛家의 茶供養의 褶合으로 전적으로 한정할 수도 없는데, 民俗學的 식품으로서의 意味도 커서 李芝山氏에 의하면 대추, 호초, 계피 및 밤은 씨, 싹 및 줄기를 가리키는 生産의 意味도 크다 하였다. 이는 李朝宮中 고사받기상에도 나타나지마는 產室에 해당되는 방에(즉 產神帝釋神이 계시는 곳) 호초차를 놓는 것을<sup>23.78-79</sup> 보아도 알 수 있다.

帝釋三聖床 (三神帝釋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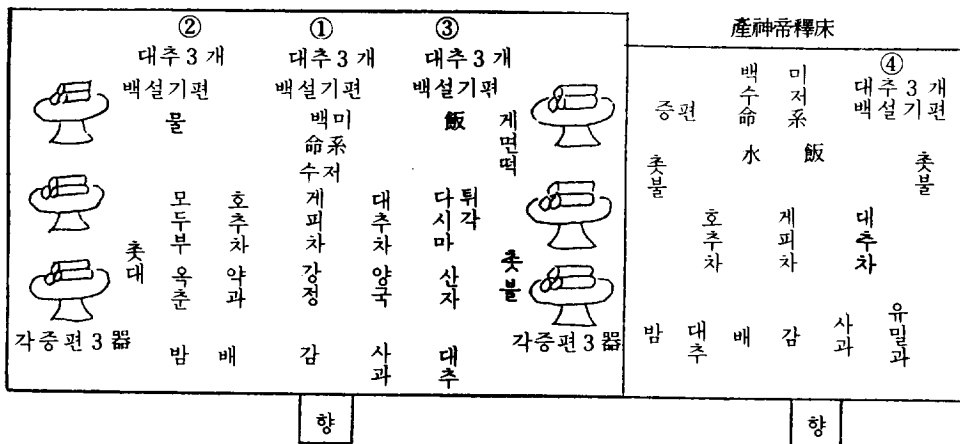


그림 4. 現 帝釋床 서울國師堂, 1974. 9. 15 觀察 및 李芝山氏의 提供에 依함

\* 三聖: 天, 山, 水神을 가리킴.

② 백설기편

팔시루편과 대응되는 祭物로서 龍神, 帝釋神, 七星神, 山神 즉 天神을 대상으로 祭祀 지낼 때 반듯이 드리는 獻物로서 떡의 계급을 따진다면 증편보다는 下位이고 팔편보다는 上位의 편이다. 백설기는 시루떡보다 原始的이고 宗教的인 떡으로서 禪觀念에 의한 신성觀念이 最高의 神格인 龍神 帝釋神 山神 七星神에 나타나<sup>3:188</sup> 표현된 상징적인 祭物로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회다"라는 형용사는 해(陽)라고 하는 名詞에서 轉成된 품사이며 회다의 옛말은 "히다"인데 太陽을 15세 기에는 히라고 하였다". 증편이나 백설기편의 흰색은 우리민족의 흰색숭배사상에서 나왔고 흰색을 숭상하는 것은 太陽 숭배사상의 흔적으로서 이렇게 볼 때 흰색 天神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재미있는 현상은 이 백설기餅에 반듯이 대추 3개를 박는다는 事實로서 흰색 즉 陰인 白餅에 붉은색 즉 陽인 대추가 박힌 것으로 보아 이는 生産의 의미가 아닐까. 4器的 白餅이 天神 山神 水神 産神의 獻物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供物에 박힌 대추의 意味로서 들추어 보아도 추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陰陽의 觀念으로 볼 때 대추는 陽인 붉은색으로<sup>4:92</sup> 帝釋이 드실 신성한 떡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잡귀들을 물리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③ 튀각과 두부

이 祭物은 現在도 寺刹음식으로 중요한 음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놓임은 佛敎의 영향인지 또는 佛敎가 巫로부터 가지고 갔는지 추측할 길이 없지마는 확실한 것은 불교 제상차림이나 帝釋床차림으로 보아서 坐佛의 밀접한 유사성이다. 特記할 것은 두부는 帝釋床에는 반듯이 모두부를 생으로 쓰며 지왕상에는 두부를 잘라 기름에 지진 것을 사용한다(後記함).

④ 白米 命系 수저

白米에 수저를 꺼꾸로 꽂고 실을 감은 것으로 生産과 수명의 意味가 있다.

⑤ 증편 6器

巫堂內歷의 3器와 비교되나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이 증편 6器를 "마진족자"(마주 보고 있는 족자)라 불렀다.

⑥ 帝釋床의 種類

巫堂內歷상에 있는 帝釋床은 帝釋三神을 위한 床으로서 한 床이었으나 現 帝釋床은 두 床이다. 이는 床차림에 있어서 物目的 多少에 따른 變化 및 간소화로 본다. 지금은 帝釋三神床과 産神帝釋床으로 나누이는데 帝釋三神은 産神帝釋보다는 上位의 神으로서 李芝山氏에 의하면 三神帝釋床은 三聖帝神에 발원하는 床이며 産神帝釋床\*은 産神을 위한 床이라 하였다.

以上 帝釋床차림을 비교하여 보았는 바, 백설기 3器, 茶 3器, 모두부 1器, 다시마튀각 1器, 白米 1器를 제외하고는 별차이가 없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事實은 佛敎의 紅東白西의 法則에 따라 붉은 과일은 東쪽(蘭谷의 記錄에 있어서는 감에 해당되며 現 祭床차림에 있어서는 사과에 해당)에 흰과일은 서쪽에 진설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意識構造의 摻合現象과 마찬가지로 床차림의 佛敎化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前記한 바 帝釋거리의 對象神은 帝釋神이며 床차림 역시 佛敎的이라 하였거니와 여기에 佛敎의 意識이 摻合되어 佛敎의 진설법을 보이고 있다.

(라) 別星巨里床

別星의 神格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구구함이 많다. 天然痘神<sup>18.7.41</sup>이라고도 하고 檀君의 侍臣인 고시례神<sup>24</sup>이라고도 하며 別相이라고 표기하고 나라에서 죽은 연산군이나 思悼世子神(제명에 죽지 못한 나라 어른들)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現 別相床은 上山마누라床과 同一하게 使用되고 있는데 巫堂內歷에 기재되어 있는 別星床은 上山마누라床보다는 下位로서 안주床이 빠진 것이 특징이다. 床차림을 보면(사진 4, 그림 5) 계괴팔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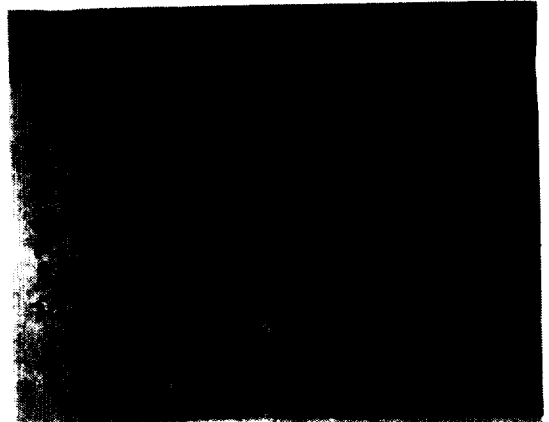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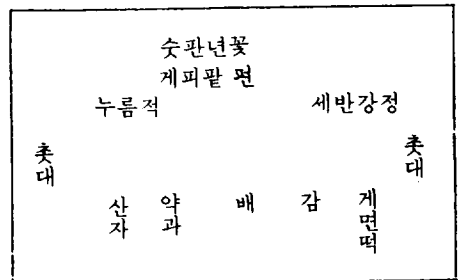


그림 5. 別星床

\* 産神帝釋을 들어보면 대함계석(文式的 祖上을 指稱), 佛師帝釋(僧의 祖上을 지칭), 백황帝釋(漁民의 祖上을 지칭), 진동帝釋(古財의 祖上을 지칭), 열바가지닝쿨帝釋(농민의 조상을 지칭) 등이다.



器, 누름적 1器, 세반강정 1器, 산자 1器, 약과 1器, 배 1器, 감 1器, 계면떡 1器로서 帝釋床과 비교했을 때 누름적 1器, 팔계피편 1器, 세반강정 1器를 제외하고는 同一한 유형으로 오늘날의 別相床과도 안주床을 제외하고는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징적인 物目を 記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피팔편

現 祭床의 계피팔편과 비교하면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白餅은 山神 帝釋神 龍神 七星神 등 天神계 바치는 獻物이라면 팔편은 성황신 잡귀 등의 鬼神과 祖上神을 위한 主獻物이 된다. 巫堂內歷에 있는 편떡에 동그란 것을 많이 었었는데 이는 오늘날 팔편위에 얹어 놓은 주악이 아닌가 생각된다(後記함).

② 누름적

現 別相床에도 반듯이 진설되는 일종의 술안주의 意味로서 帝釋床만 빼놓고는 어느 床에도 다 있는 것으로 보아 육류를 위주로 한 누름적으로 생각된다.

(마) 現 別相床차림과 비교

안주床을 제외하고는 별차이가 없다. 다만 紅東白西의 儒式法則이 別相床에도 적용됨은 帝釋床차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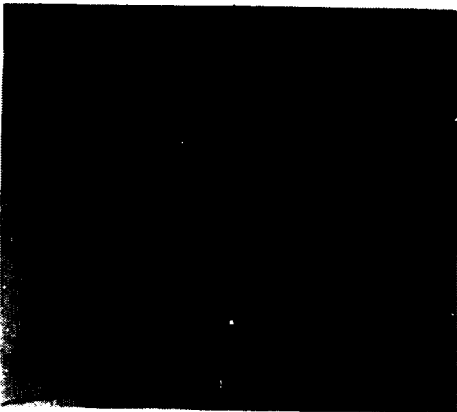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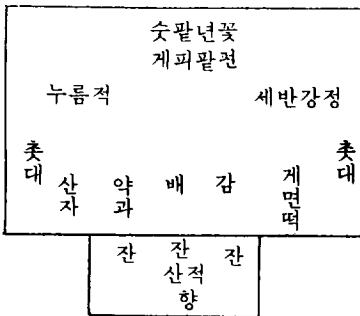


그림 6. 대거리床

(後述할 現代의 巫俗床차림을 참조 바람).

(바) 大巨里床

大巨里는 요즈음 上山마누라거리 혹은 최장군거리라고도 한다. 神格은 역시 최영장군\* 으로서 다른 거리보다 성대하며 보통 祭祀에 있어서 祖上神으로서는 가장 크게 받들어 모신다. 床차림은 오늘날 上山마누라 또는 別相床과도 일치되는데 다만 누름적과 술잔의 위치 등 物目的의 위치 및 量이 약간 다를 뿐이다(사진 5, 그림 6).

술이 3잔인 까닭은 유교의 초헌 아헌 중헌과도 같으며 그것은 "많이 잡수십시오"라는 "많다"는 3의 觀念으로도<sup>4:348</sup> 해석된다.

(사) 戶口巨里床

戶口の 神格에 對하여는 處女神 天然痘神<sup>18:141</sup>으로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요즈음은 太祖大王의 妃인 誠妃, 義和宮主, 貞慶宮主가 處女로 죽었다고 하여 戶口の 鬼神으로 觀念된다.

巫歌에도 "日月은 삼호구" 또는 "증전안에 대전호구, 대전안에 증전호구, 남가남묘(南關王廟)는 증전호구"가 있듯이 현 國師堂의 巫神圖를 보면 달아래 義和宮主 가운데 誠妃 해 밑에 貞慶宮主가 太祖大王과 太祖大王의 正婦인 康氏夫人 옆에 자리잡고 있어 "日月은 삼호구"에 대한 意味를 생각해 한다. 床차림(사진 6, 그림 7)은 別星床과 다를 것이 없고 오늘날의 床과도 어느 정도 同一하므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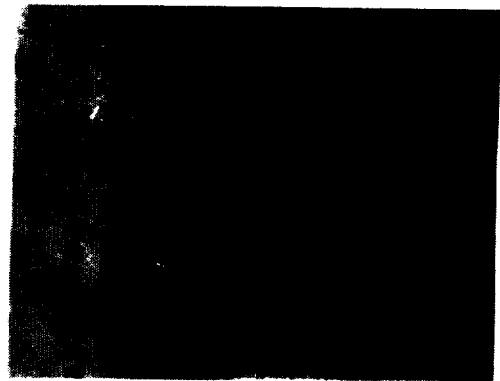


사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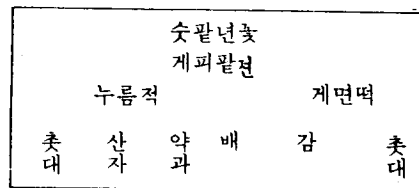


그림 7. 호구거리床

\* 서울巫家에서는 최영장군을 巫堂 祖宗神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

(아) 뒷전床

곳을 마치고 이름없는 잡귀들을 먹여 보내는 祭次로서 巫堂內歷상의 뒷전의 神格은 오늘날의 神格과도 일치된다. 다만 現祭床차림과 비교함에 있어 첫째 飯 3기가 現床에는 보이지 않고 둘째 酒 3잔이 巫堂內歷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北魚가 巫堂內歷상에는 2마리이나 現祭床에는 3마리로서 個數의 차이가 있다. 이 뒷전床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後論한다(사진 7, 그림 8).

以上 蘭谷의 巫堂內歷을 中心으로 하여 現代의 祭床차림과 비교해 보았다. 蘭谷이 巫堂內歷을 집필한 시기는 1823年 또는 1883年頃으로서 당시의 文化의 轉位란 가정하에 이 床차림을 1800年代의 初期 床차림으로 가정해 볼 때 物目 진설법 祭次 등이 오늘날의 祭와 거의 다름이 없음을 흥미로운 事實이다. 그것은 첫째 現巫祭의 형태는 1800年代의 初期에 이미 完成되어 있었고, 둘째 帝釋거리와 같은 佛敎化된 儀式은 그 祭物에 있어서도 佛敎的이며, 셋째 당시 사용된 祭器는 굽이 달린 접시형으로서 오늘날의 祭器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넷째 床차림에 있어서 각 모시는 神의 上下에 따라 진설이 차이가 나며, 다섯째 음식진설법에 있어서 紅東白西 등의 儒式法則이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蘭谷의 巫堂內歷상에 나타난 巫祭는 오늘날 國師堂 서민국의 規模와 그 祭物로 비교해 볼 때 일반 서민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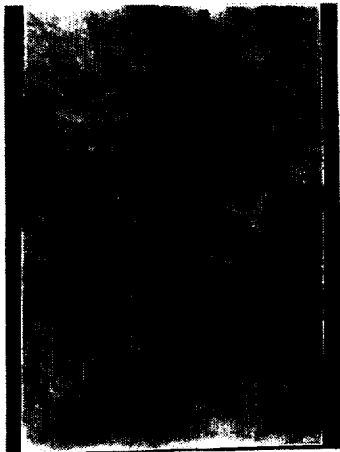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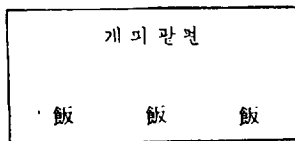


그림 8. 뒷전床

2) 宮中발기에 나타난 李朝巫祭物의 物目

(가) 1886年 丙寅二月 온산松岳 別祈禱발기의 物目 別祈禱는 國行祭<sup>23:56</sup>이다. 高麗末의 別祈思祭와 一致하는 것이며<sup>23:57</sup> 또한 別祈思의 遺習이다.<sup>2:206</sup> 이 別祈禱는 司祭者인 무당의 歌舞를 中心으로 한 굿풀이 儀式<sup>2:206</sup>으로서 名山大川에서 行하던 神事이다.<sup>23:57</sup> 이것은 自然의 재해를 예방하고 克服하려는 爲政者들의 마음이며<sup>2:206</sup> 또한 그들은 이 祭를 통하여 安寧과 豐饒인 善에 의하여 災厄과 凶荒인 惡神을 逐하기 위한 祈禱의 表現이었다.<sup>2:206</sup>

1886年 丙寅二月의 온산松岳 別祈禱발기는 高宗二年의 別祈禱에 使用된 物目을 中心으로 기록된 것이다.<sup>23:58</sup> 당시의 致成處는 승당, 감악산, 세도령, 개성, 대국, 박사다, 밭산, 호녕, 팔당, 중앙, 동도, 송악당, 제성각, 장단, 봉국사, 월정이<sup>23:59</sup> 있으나 本章에서는 제성각을 中心으로 기술하였다. 발기상에 나타난 物目은 무당들의 衣服에서부터 踏資 祭物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기술되어 있으나 그 祭床차림에 사용되었던 物目만 간추렸다.

黃 燭 一石五十八柄	芙蓉香 四十四柄
白 紙 四十五卷	壯 紙 一卷五兩
壯油紙 四卷二兩	筆 三十柄
黑 三十疋	布 三十疋
布 木 三十五단	炭(숯) 七石
축 木 十一축	
호 초 二斗	生鮮 四十七尾
생 치 四十一首	계 十八首
조 기 八十一尾	문어 十一이반
홍 합 二斗一升	해삼 二百四十五개
석 어 二十축	生梨 二점
건 시 五점	이柏子(갓)二斗
生 粟 五斗	전자(개암) 三斗
米 五石오곡대	장어 二十五尾
中전복 四엽三곳二개	숙전복 七곳三개

24 : 130

(나) 1889年 己丑年五月 山가오신 발기

1866年 別祈禱에서 보이는 國家社稷을 위한 目的과 는 달리 己丑年의 致誠은 閔妃가 高宗과 純宗을 위함이 目的이된 祈禱이다.<sup>23:65</sup> 祈禱處는 高陽 臨津 長端 감행당, 월정당, 대행당, 승당, 정당, 한우물(大井) 석우물 大國 碑閣 德物山 우물로서 이때 쓰인 祭物目은 다음과 같다.

燭 二百柄	白紙 五十鎊
白木 一동十疋	木 六동

布 一疋                      太 五石  
米 三十二石                錢文 八千兩 24 : 134

(다) 年大未詳\*<sup>23:68</sup>의 爲祝발기

위축발기는 주로 高宗과 純宗의 수명장수를 위하여 明成皇后 閔妃가 名山大川 祈禱에 使用된 物目を 기록한 것이다. 탄일위축과 十月 正月 爲祝은 名山大川 寺刹 神堂이 對象이 되었다. 致祭處는 南廟 北廟 東廟 道說庵 望月寺 獅子庵 奉印寺 奉元寺 華溪寺 덕질 鶴到庵 성질 靑巖寺 新興寺 동불암 津寬寺 三慕寺 回龍寺 미륵당 北山 進上 牛首峴 使臣城隍 허주신사 黑石里 城北洞 미륵당 은행정老姑堂 錦城堂 南山國師堂 旧把撥 覺心寺 三清洞巫女 東門外巫女 三角山 흥계원미륵당 용덕당堂主 三清洞허주신사 선바위 老人星堂主 龍神경당主<sup>25:135-145</sup> 등으로서 帝釋 龍神 山神 七星神이 主對象<sup>23:60</sup>이 되어 기도를 올렸다. 다만 각 기도처에 드린 物目を 보면 반듯이 米와 호초가 기재되어 있는데 米와

호초를 제외한 다른 여러가지 物目이 소용된 各處를 對象으로 하여 여기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寺刹만은 예외로 食物의 비교 관계상 米와 호초 뿐이나 기록하였다. 발기 內容을 보면 場所마다 특징있는 食物目を 갖고 있는데, 南廟 東廟 北廟의 物目は 胡椒 生鮮 생치 米 眞油 幣帛木 등이 공통적이다. 특히 幣帛木은 儒式祭에서 神께 禮를 갖추기 위하여<sup>9:68</sup> 使用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보임은 南東北廟는 宣祖 32年(1599)에 南廟가 건립되어 關王을 모셨던 後로 발생된 廟로서 儒祭堂處이었다가 李朝末에 와서 壽命長壽를 위한 爲祝祈禱의 對象處가<sup>23:67</sup> 되었기 때문이며 米를 수라미라 한 까닭은 왕에 바치는 米로서의 意味가 있다. 7月탄일발기건 正朝爲祝 발기 十月爲祝발기건간에 각 廟에는 생선 4尾가 쓰였고 進上 北山 은행정老姑堂 錦城堂의 物目は 생선 대구 문어 전복 등 일반적으로 생선류를 많이 쓰고 있다. 進上 北山 은행정노고당 錦城堂은 巫의 神堂處로서 儒式致祭

	七月 탄신各處 위축발기	每年正朝爲祝 발기	每年十月爲祝 발기
南廟	胡椒一封 수라미 3斗식升 생치 3首 생선 4尾 眞油 六升 氷 3 정 幣帛木 三疋	胡椒一封 수라미 3斗 생치 3首 생선 4尾 眞油 6升 幣帛木 2疋	胡椒一封 수라미 3斗식升 생치 3首 생선 4尾 眞油 6升 幣帛木 3疋
東廟	胡椒一封 수라미 2斗식升 생치 2首 생선 4尾 眞油 2升 氷 2 정 幣帛木 2疋	胡椒一封 수라미 2斗 생치 2首 생선 4尾 眞油 3升 幣帛木 2疋	胡椒一封 수라미 2斗 생치 1首 생선 4尾 眞油 2升 幣帛木 2疋
北廟	胡椒一封 수라미 3斗식升 생치 2首 생선 4尾 眞油 6升 氷 3 정 幣帛木 2疋	胡椒一封 수라미 2斗 생치 3首 생선 4尾 眞油 6升 幣帛木 1疋	胡椒一封 수라미 3斗식升 생치 3首 생선 4尾 眞油 6升 幣帛木 2疋
各寺刹	米一石 胡椒一升	米一石 胡椒一升	米一石 胡椒一升
進上	胡椒 生鮮 5尾 鷄 5首 米 一石	胡椒 전복 반접 생선 5尾 鷄 5首 문어 3尾 대구 24尾 광어 3尾 삼색생실과 2斗씩 米 一石	魚物 생것 米 一石
北山祈三廟	胡椒 2封 경미 8斗 米 一石 대구 20尾	胡椒 경미 4斗 米 一石 대구 14尾	胡椒 1封 경미 4斗 米 一石 대구 14尾
은행정老姑堂	전복 반접 문어 2尾 대구 24尾 三色生実果 各 二斗씩		

25 : 135 - 145

\*各 處에서 쓰인 鑄文紅燭 黃燭 白紙 淸遠香 白檀香은 생략하였음

\* 崔吉城은 이 年代未詳의 발기를 1902年 以前의 것이라 하였다.

處였던 東南北廟와 자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進上 北山은 愼正노고당 錦城堂의 祭床物目이 北廟, 南廟, 東廟의 것보다 土俗性이 짙다고 하겠다. 각 사찰에 소용된 祭物目은 어느 寺刹이건 米—石과 胡椒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佛家의 살생금지 思想의 영향이며 또한 호초에 대한 기록은 愼正노고당 금성당을 뺀 어느 爲祝處에도 다 보인다. 이는 제성각의 나라굿이나 기축년의 기도처 그밖의 爲祝處의 대상신이 山神 龍神 帝釋神 七星神을 主對象으로 한 名山大川祭였기 때문이다. 金用淑 교수는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에서 胡椒가 발기상에 나타남은 당시 外國에서 수입해온 貴重한 物品이었기 때문에 宮에서의 하사품이라 하였으나<sup>26,498</sup> 現 巫歌에서도 “삼신제석 자부신자에 호초삼잔 이슬맺소 호초차, 게피차, 대추차이오나...”가 있는 것과 같이 胡椒는 주로 茶를 위한 物目이었다. 現巫祭의 山神床 및 帝釋床에는 호추차, 게피차, 대추차가 반듯이 진설된다.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宮中告祀”의 祭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각 致祭處에서의 物目を 보면 1866年 제성각에서의 物目이 훨씬 다양하다. 그것은 제성각 祭는 나라에서 행하던 나라굿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굿의 규모가 컸을 것이고 그밖의 기도는 閔妃가 高宗과 純宗을 위하여 드린 기도로서 全國의 名山大川 神堂에다 致祭하기 위하여는 한군데만 많은 物目を 쓸 수가 없으므로 分散된 結果이며 제성각의 物目中 생치가 보임은 東南北廟의 생치와 일치된다. 생치는 卍의 代用으로 쓰였을 것이다.

1899年 己丑年5月の 山祭時에 使用된 物目은 米三十二石과 太五石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米는 각기도처에다 쓰인 것을 보면 飯을 위한 것도 있었으나 백설기편

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기술로서 巫祭物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즉 제성각의 祭物 및 進上 愼正老古堂 錦城堂 北山의 祭物을 비교했을 때 공통적인 전복 문어 대구 鷄 생선류 米 삼색생실과 胡椒 등이 발기상에 나타남으로서 당시 이러한 物目이 祭物로서 주로 쓰였음을 짐작케 한다.

(라) 現 三角山 山祈禱祭物

李朝의 名山大川 祈禱時의 祭物目은 現 山祈禱時의 祭物과 비교해 볼 때 明確한 答을 얻을 수 있다. 삼각산 祥雲寺에서 行한 3日間의 山祈禱祭物에 있어서 山神에게는 백설기편 飯 胡椒茶 게피차 대추차 미나리三色 과일을 中心으로, 龍神에게는 飯, 玉水, 미역, 과일을 中心으로 神將 將守 虎鬼 靈散鬼 大監 本鄉 府軍堂神 木金土水草神 胡鬼 등 下位의 山神에게는 콩백설기, 육포, 북어포, 玉水, 탁주, 전유어, 과일을 中心으로 設床되었다(그림 9~11).

10月 23日의 山神床의 設床에 있어서 콩백설기 백설기 습하여 餅이 들임은 백설기는 五岳諸神인 山神을 위한 獻物이고 콩백설기는 後土聖母인 女山神을 위한 獻物이다. 또한 노그매(飯에 해당)가 3器인데 이것은 각각 삼각산山神 全 팔도강산山神 宇宙의 山神을 위한 노그매로서 각 3器라 하였다. 10月 25日 供物中 콩백설기만 보이는 것은 後土聖母인 女山神만을 위한 供物이기 때문이다. 즉 첫날 빌었으니까 둘째날부터 받고자 하는 女山神에 대한 생산적 관념이 獻物에까지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龍神床은 山神床에서 2m 떨어진 물이 나오는 곳에 진설되었다. 龍神은 産神帝釋神 七星神과도 통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命福 및 祈子를 위한 設床이다.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콩백설기 백설기 노그매 노그매 노그매 茶水 호추차 게피차 대추차 밤 생미나리 대추 송편 배 배 감 사과 사과 초 향 초	生米 콩백설기 生米 茶 水 노그매 노그매 노그매* 호추차 게피차 대추차 밤 대추 생미나리 밤 배 감 사과 초 향 초	콩백설기 대 추 노그매 노그매 노그매 밤 茶水 밤 호추차 게피차 대추차 대추 생미나리 소지종이 사과 감 사과 초 초 줍 초 초
1974.10.23 의 設床	1974.10.24 의 設床	1974.10.25 의 設床

그림 9. 山神床

\* 노그매는 飯을 가리킴. 산신에게는 노그매, 부처님에게는 마지, 잠귀에게는 잠밥. 儒式祭에서는 젓메라함.

飯 미역국 밥 茶水 대추 송편 배 감 사과 초 향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돈	生米 飯 미역국 소지종이 배 감 사과 송편 대추 밥 초 향 초 茶水 돈	生米 건미역 飯 茶水 미역국 밥 대추 배 감 사과 초 향 초 돈
1974.10.23의 設床	1974.10.24의 設床	1974.10.25의 設床

그림 10. 龍神床

飯 水 콩백설기 肉脯 송편 초 술 초 초 배 감 사과 초 초 대추 밥 초 초 초 香 초 초	초 飯 초 초 콩백설기 水 술 초 초 대추 밥 북어포 초 초 배 감 사과 초 초 香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콩백설기 玉水 飯 麩 生米 대추 밥 술 통북어 배 감 사과 초 초 초 초 香 초 초 초 초
神將, 大監, 將守, 床	本郷, 府軍堂神 木金土水草神 床	胎鬼, 虎鬼, 靈散鬼, 床
1974.10.23의 設床	1974.10.24의 設床	1974.10.25의 設床

그림 11. 下位の 山神床

서울 三角山 祥雲寺의 山祈禱 祭物設床圖

1974年 10月 12日 도봉구 상계동 영원사에서 行한 영산제에 있어서 七星閣에 陳設된 物目은 백설기편 胡椒茶 茶水 감 배 포도를 중심으로 진설되었는 바 따라서 이러한 祥雲寺와 영원사의 祭物目은 궁중발기상의 物目의 용도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발기상에 나타난 物目은 前述한 “祭物의 起源 및 民俗學的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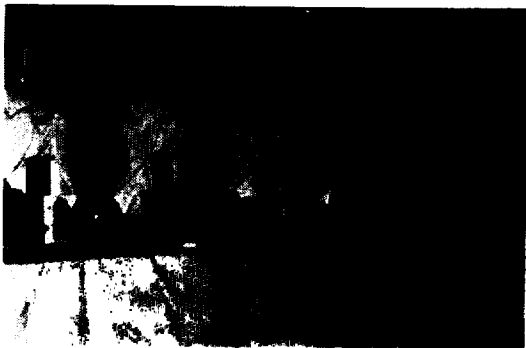


사진 8. 서울 도봉구 상계1동 영원사 七星閣內의 床차림

에서 밝혀낸 韓國土俗祭物을 決定짓는데 도움을 준다 하겠다. 그러므로 발기상에 나타난 物目을 조리법으로 보면 전복 문어 대구 등 魚物은 주로 脯 전유어 찜으로 胡椒는 茶로 米는 飯과 백설기로 생치는 胙의 代用으로 사용한 것이다.

(마) 宮中 告祀발기

告祀발기는 癸卯二月 二十六日 덕수궁 威寧殿의 告祀所入 및 癸卯四月 觀命殿 告祀발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 告祀는 宮中의 春節 告祀로서 殿閣이 여럿이 있어 2번에 나누어 지낸 告祀이다.<sup>23:77</sup> 告祀時의 祭物을 보면 백설기, 팔시루떡, 약주, 탁주, 牛頭, 猪頭, 猪脚, 北魚, 胡椒茶, 果實 등 간단한 物目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神의 上下에 따라 바치는 獻物이 다르다.

祭物을 바치는 곳은 殿閣을 중심으로 그에 딸린 大廳, 庭, 木, 井, 軒, 竈, 堂室, 庫間, 門, 神堂터 등에 바치고 있으며 주로 寢殿이나 處所를 중심으로 하여 바쳐지고 있다. 獻物을 팔시루편을 중심으로 하여 齋釋神이 계시는 온돌방과 七星神 및 龍王님이 계시는 우물에는 백설기 胡椒茶가 바쳐졌다. 따라서 어느 곳이고

癸卯三月二十六日咸寧殿告祝발기		癸卯四月觀明殿告祝발기	
咸寧殿	咸寧殿	觀明殿	宝文閣
대청, 餅, 猪頭, 약주, 実果	동산, 餅, 北魚, 약주, 実果	觀明殿, 餅, 猪脚, 약주	동산, 餅, 北魚, 탁주
온돌, 餅, 백설기, 호초차, 実果	二間房, 餅, 백설기, 호초차, 실과	前庭, 餅, 牛頭, 탁주	香木, 餅, 北魚, 탁주
台, 餅, 猪脚, 약주, 実果	단고간, 餅, 猪脚, 약주	後庭, 餅, 北魚, 탁주	각감청, 餅, 猪脚, 약주
前庭, 餅, 牛頭, 탁주	水刺間, 餅, 北魚, 약주	槐木, 餅, 北魚, 탁주	벽독집
後庭, 餅, 北魚, 탁주	大家堂, 餅, 猪脚, 약주	우물, 餅, 백설기, 호초차	上層, 餅, 猪脚, 약주
衣樹房, 餅, 백설기, 호초차, 実果	宇, 餅, 백설기, 호초차, 실과	우구차양	下層, 餅, 猪脚, 약주
咸有齊	청희문, 餅, 北魚	上層, 餅, 牛頭, 약주	料理間
咸有齊, 餅, 猪頭, 약주	퇴선간, 餅, 猪脚, 약주	下層, 餅, 猪脚, 약주	料理間, 餅, 北魚, 탁주
宇, 餅, 백설기, 호초차, 実果	凝春門, 餅, 北魚, 탁주	嘉靖堂	前庭, 餅, 北魚, 탁주
前庭, 餅, 北魚, 탁주	宇, 餅, 백설기, 호초차, 실과	온돌, 餅, 백설기, 호초차	後庭, 餅, 北魚, 탁주
後庭, 餅, 北魚, 탁주	洗面間, 餅, 猪脚, 약주	실과	生陽門
齋巖齋	三祝堂, 餅, 猪脚, 약주	大庁, 餅, 猪脚, 약주	香木, 餅, 北魚, 탁주
齋巖齋, 餅, 猪脚, 약주, 실과	前庭, 餅, 牛頭, 탁주	前庭, 餅, 탁주 北魚	槐木, 餅, 北魚, 탁주
東大庁, 餅, 약주, 猪脚	後庭, 餅, 牛頭, 탁주	後庭, 餅, 北魚, 탁주	水刺間
景孝殿	유호실, 餅, 猪頭, 약주, 실과	即昨堂	水刺間, 餅, 北魚, 탁주
앞복도, 餅, 猪脚, 약주	앞우물, 餅, 백설기, 호초차, 실과	即昨堂, 餅, 猪脚, 약주, 실과	의재실, 餅, 猪頭, 약주
뒤복도, 餅, 猪脚, 약주	前後계소문, 餅, 北魚, 탁주	前庭, 餅, 牛頭, 약주	뒤우물, 餅, 北魚, 탁주
東庭, 餅, 北魚, 약주	우물, 餅, 北魚, 탁주	後庭, 餅, 北魚, 탁주	馬廐間
西庭, 餅, 北魚, 약주	後계소, 南温窓, 餅, 猪脚 약주	冊庫間, 餅, 猪脚, 약주	餅, 北魚, 탁주
靜觀軒	後계소, 北温窓, 餅, 猪脚 약주	昔卸堂	
정관헌, 餅, 猪脚, 약주, 실과	外軒, 餅, 北魚, 탁주	昔卸堂, 餅, 牛頭, 탁주	
前庭, 餅, 北魚, 탁주	閣門, 餅, 北魚, 탁주	前庭, 餅, 牛頭, 탁주	
後庭, 餅, 北魚, 탁주	아령문, 餅, 北魚, 탁주	後庭, 餅, 北魚, 탁주	
		裕堂터, 餅, 猪脚, 약주	

25 : 146~147

餅類은 반듯이 진설되었고 백설기 胡椒茶를 진설한 곳만을 제외하고는 肉類를 꼭 바치고 있는데 殿閣에는 猪頭, 前庭에는 牛頭, 後庭이나 槐木에는 北魚를, 庫間에는 猪脚을 바침으로서 神의 上下에 따라 種類도 多樣하다. 즉 猪頭 牛頭 猪脚 北魚의 順序로서 飲料도 이러한 順序를 따르는데 가장 重要한 곳 즉 産室 및 壽命에 해당되는 곳에는 胡椒茶 그 다음에는 약주 마지막 해당되는 곳에는 탁주를 바쳤다. 이와같은 獻物의 내용은 原始宗教의 祭祀飲食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2. 現 巫俗 床차림

서울지방의 巫俗에 의한 祭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다. 터주굿, 내림굿, 진적굿, 나랏굿, 제당굿, 산맞이굿, 도당굿, 천신굿, 무닥거리, 지로귀굿, 마마배송굿, 용신굿, 연풍굿... 등인데 따라서 各 祭마다 床차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굿의 규모와 他宗教와의 비교 관제상 指路鬼굿 床차림을 선정하였다. 指路鬼굿이란 死者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지내는 巫俗의 祭로서 指路鬼 새남 열새남 평指路鬼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 각각에 따라 床진설의 규모는 다르나 일정한 형태에서 陳設되므로 평指路鬼굿\* 을 資料로 하였다. 평指路鬼굿은 死者가 된지 49일을 단위로 하여 行하여지는데 의식절

\* 李芝山氏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1974年) 20年前만 하더라도 指路鬼굿을 할 때 첫째 진부정(무당집에서 행함), 둘째 관뉘(가정집에서 행함), 셋째 자리거리(가정집에서 행함), 넷째 사재삼성굿(할미당 또는 老古堂에서 행함)을 한 후 비로소 다섯째에 지로귀 새남굿(상류층), 열새남굿(중류층), 평지로귀굿(서민층)을 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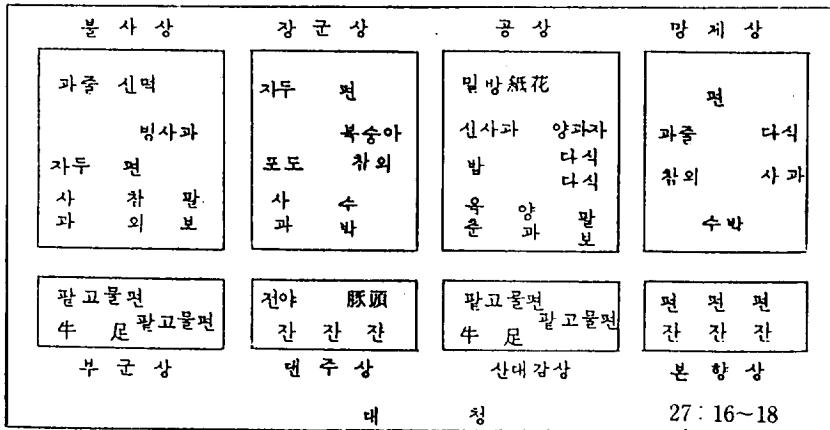


그림 12.

차 巫服 巫歌 祭物 등이 다분히 佛敎的 색채가 짙다.

1) 指路鬼굿 床차림의 형태

(가) 1971년의 國師堂 평指路鬼굿 床차림(그림 12)

(나) 1974年度の 평指路鬼굿 床차림

① 관찰日時: 1974年 8月 30日 午前 10時부터 午後 6時 30分까지(사진 9, 그림 13)

장소: 서울 인왕산 國師堂

② 觀察日時: 1974年 8月 26日 午前 10時부터 午後 5時까지(사진 10, 그림 14)

場所: 서울 인왕산 國師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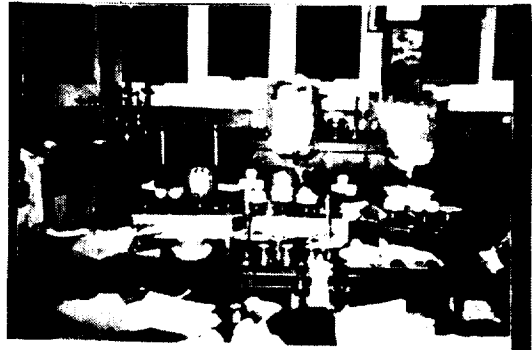


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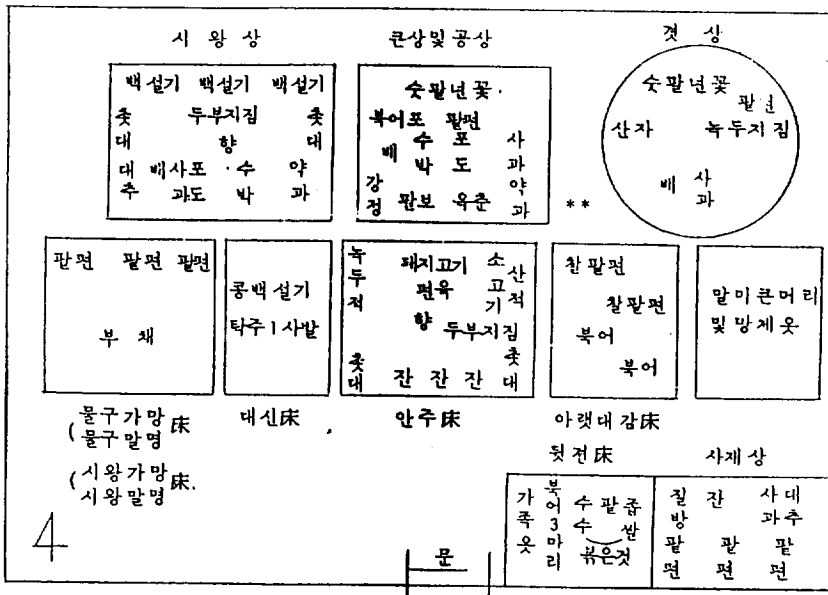


그림 13.

\*\* 유과류의 고임높이: 1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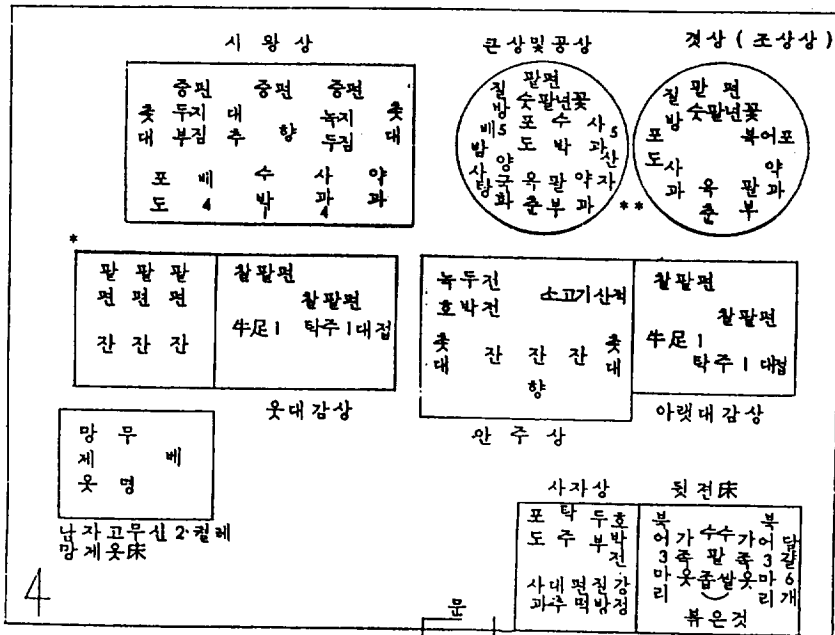


그림 16.

다. 왜냐하면 指路鬼窟이란 佛敎 10大王전의 명부 衆生 이된 亡者를 위한 극락천도窟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12의 床의 명칭중에 장군상 대주상 본향상 등 그림 13~16과 비교되는 어휘가 나오나 장군상은 지금의 큰상, 대주상은 안주상, 부근상은 대감床으로 풀이되므로 같다.

이러한 여러 개의 床차림중 그림 16을 中心으로 하여 祭物 및 床차림에 關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2) 指路鬼窟 床차림과 祭物目

(가) 시왕상(十大王床)

十大王은 佛家에서 말하는 지옥을 다스리는 열분의 왕이시다. 각 大王마다 地獄이 다르고 그 地獄은 7일을 한단위로 하여 亡者(佛家에서는 靈駕라고 함)가 떨어지게 되는데(봉원사 冥府殿 參照) 佛家에서는 이러한 十大王전의 冥府世界에서 벗어나는 길은 끊임없는 供養으로서 供養을 해야만 완전히 지옥에서 벗어나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으로 천도된다 한다. 이러한 것을 摺合한 巫俗에서는 佛敎의 供養이 곧 指路鬼窟에 해당하도록 合理化시킴으로서 儀式化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곧 指路鬼窟에 이 十大王床이 있는 것은 “부디 十大王님 많이 잡수시고 亡者를 빨리 천도시켜 주십시오”라는 土俗의 觀念에 의해 생겨난 床으로서 指路鬼窟 祭物

十大王	各관상하시는 地獄	死後 1주일만에 가는 곳
秦 大 王	刀 山 地 獄	" 2 " "
初 江 大 王	鑊 湯	" 3 " "
宋 帝 大 王	寒 氷	" 4 " "
五 官 大 王	劍 樹	" 5 " "
閻 羅 大 王	拔 舌	" 6 " "
變 成 大 王	毒 蛇	" 7 " "
秦 山 大 王	剝 離	" 100 " "
平 等 大 王	鉅 解	" 1년 " "
都 市 大 王	鉄 床	" 3년 " "
五 道 轉 輪 大 王	黑 暗	***

中 가장 上位의 獻物이 되며 床의 규격 역시 가장 크고 높다. 床차림을 보면 증편이 3器, 두부지짐 1器, 대추 1器, 녹두지짐 1器, 배 1器, 포도 1器, 수박 1器, 약과 1器로 前記한 帝釋床과도 유사한 床차림 형태를 보여주는데 역시 육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物目別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사진 13).

① 증편

그림 13에 이 증편이 없는 것은 陳設이 잘못된 것으로 前記한 巫堂內歷에서 보았듯이 이 떡은 佛家와 관계

\* 물구가당床 시왕가당床

물구말명床 시왕말명床

\*\* 유과류의 고입높이 15 cm

\*\*\* 서대문구 봉원동 봉원사 冥府殿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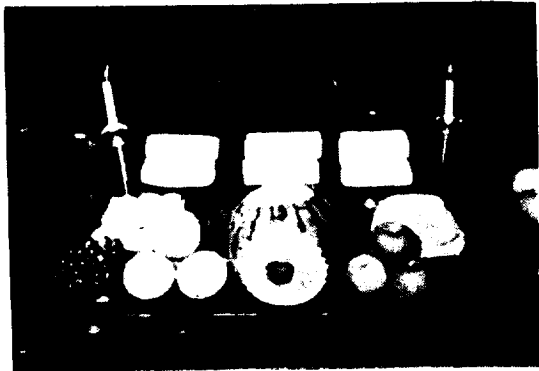


사진 13. 시왕상

되는 神에게는 반듯이 차린다. 그림 12에 이편을 神떡이라고 表記하였는데 글자 그대로 神떡이다. 이 떡의 특징은 “맵고 달고 짜고 시고” 등의 간을 절대로 안하는 것과 이 떡이 陳設된 곳에는 肉類를 놓지 않는다. 이 떡에 관해서는 前記하였으므로 생략한다.

② 두부지짐

가로 10cm 세로 5cm 두께 1cm되게 잘라 식물성 기름에 지진 것(동물성기름 즉 돼지기름 등을 사용하면 부정단다고 함)으로 이 祭物은 佛家の 49祭때도 반듯이 陳設되며 佛家에서는 “두부전증”이라고도 한다.

③ 녹두지짐

사방 15cm되게 녹두를 갈아 콩기름에 지진 것으로 指路鬼床이기 때문에 각이지게 잘랐다 하였다. 즉 이것은 儒敎의 陰陽의 觀念으로서 “네모는 陰이며 원은 陽이다 鬼神은 陰을 좋아한다”는 관념에 依하였다.

④ 대추

백설기편에 박든지 또는 그냥 陳設하든지간에 帝釋床과 시왕床에 반듯이 쓰이는 獻物이다. 대추는 李芝山氏에 의하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일종의 祈禱 및 씨의 意味 즉 生産의 意味가 있다 하였다.

⑤ 사과, 수박, 배, 포도

果物 陳設은 보편적으로 일정하다. 대개 배, 사과, 수박을 많이 진설하는데 儒敎에서의 방위를 따져서 진설되었다. 과일 of 진설은 어떤 과일을 놓아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계절에 따라 밤, 감, 참외 등도 놓는다.

⑥ 향 촛불

前記하였으므로 생략함.

⑦ 造果類

본 床에는 약과밖에 없으나 경비의 多少에 따라 강정산자 중백기 양국 다식 옥춘 등을 진설한다.

李芝山氏로부터 전형적인 시왕床의 형태를 提報받은 바에 의하면 증편 3器, 香 1器, 촛대 1쌍, 造果類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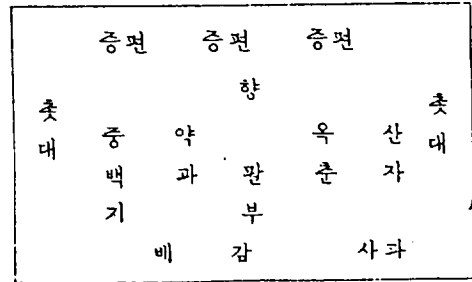


그림 17.

器, 과물 3器(그림 17)라 하였다.

(나) 물구가망床, 물구말명床, 시왕가망床, 시왕말경床

床하나로 여러 神을 대접하는 格인데 물구가망床은 초빙된 神을 위한 床, 물구말명床은 理世界의 巫死靈床이고 시왕가망床 및 시왕말명床은 十大王世界의 초빙된 神床 및 巫死靈床이며 이 床은 각각 물구가망 물구말명 시왕가망 시왕말명의 祭次가 끝날 때마다 물리고 다시 새 床으로 간다(사진 14).

① 酒 3잔

물구가망 시왕가망의 祭次일 때 즉 물구를 받을 때(巫堂神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는 淸酒를 쓰고 대간 神 등에는 탁주를 씌우어서 上神과 下神이 엄연히 구분되며 잔이 3잔인 것은 先代神 後代神 現神을 위한 3代 奉祀를 意味한다.

② 팔계피편

그림 13~16에서는 지름 15cm의 팔계피편(혹은 지름 30cm 정도로 크게하여 잘른 팔계피편)을 한꺼씩 床에다 각각 3器를 놓고 그 위에 花煎을 얹었다(花煎은 巫俗에서의 명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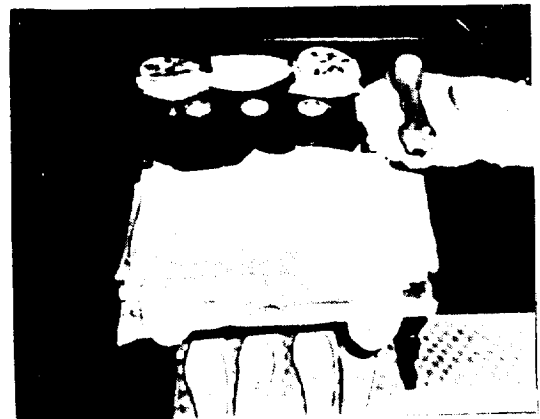


사진 14. 가망 및 말명床, 우대감床, 망제옥床, 영실이 들어와 있다하여 고무신이 안쪽으로 놓여있음

(다) 옷대감床(안대감床)

옷대감상은 後記할 아랫대감床라 더불어 祭次중 대감 거리에 使用되는 床으로서 옷대감인 上山대감 別相대감 軍雄대감 어사대감 조상대감 몸주대감을 위한 床이다. 대감신들은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고 재수를 붙게해 준다하여 옛날에는 통소와 통시루채 대감神계 대접했다 한다. (사진 14)

① 찰팔개피편

지름이 30cm 되게한 계피팔고물편으로 재료는 찰팔과 팔이다. 2켜를 놓았는데 이를 대감떡이라 하였다.

② 牛足

이 소足은 아랫대감床과 함께 한쌍을 이루는데 각각 앞발하나 뒷발하나로서 안대감 즉 옷대감이기 때문에 이 床에는 앞발을 놓는다. 소족을 대감床에 놓는 意味는 “財란 움직여야만 재수가 좋다”란 재수의 상징도 있고 “財가 소의 바리채 굴러 들어 오라”고 하여 陳說한다. 牛足 2의 의미는 통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굿이 클 때는 통소, 그 다음은 소머리 1 소족 4, 소족 2, 북어 2마리의 순서로 경비의 多少에 따라 獻物이 달라진다고도 하였다.

③ 탁주

대감神들은 물구가망 神보다는 下位로서 탁주를 올리며 酒의 器皿도 잔이 아니라 대접이다. 대감床의 형태는 경기도 전지역에 보편화되어서 경기도 양주에서 행한 굿에 使用된 대감상의 獻物 역시 팔편 牛足 탁주이었다. 28,95

(라) 망제옷床(망자옷 床)

돌아가신 亡者가(또는 영실이라고도 함) 巫堂에 실려서 온후 새옷으로 갈아입고 극락으로 천도된다는 土俗의 意識에서 나온 床이다. (사진 14)

① 망제옷

원래는 本人이 아끼고 입지 않던 것 1벌, 빨아만진 것 1벌, 本人이 입던 것 1벌, 합하여 3벌을 준비하였으나 요즘은 간략하게 새옷으로 上下衣 1벌만 놓는다 하였다. 이 옷을 놓는 意識을 調査한 바에 의하면 亡者가 指路鬼굿을 받으러 오실 때는 입던 것을 입고 오실 것이고 오셔서 빨아 만진 것을 극락으로 천도되어 가실 때는 새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세벌을 준비한다. 본 곳에서는 두사람을 위한 指路鬼굿이므로 새옷 2벌이 놓여 있었다.

② 고무신

망제옷과 마찬가지로 새것 1켤레, 닦아 놓은 것 1켤레, 신던 것 1켤레, 합하여 3켤레를 준비하나 간략화되어 새것 1켤레만 놓았다. 본 곳에서는 두사람을 위한 指路鬼굿이므로 2켤레를 놓았다.

③ 무명

이승의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남자 亡者일 때는 12자, 女子 亡者일 때는 9자, 결혼을 못하고 청춘으로 돌아간 亡者일 때는 7자의 무명을 사용(1971년도 조사에 의하면 7자7치로 기술되어 있었다)<sup>27,86</sup>하는데 즉 무명은 이승의 다리이다.

④ 베

亡人의 저승길을 닦아주는 저승의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역시 각각 12자, 9자, 7자의 베를 사용함으로써 저승의 다리역할을 한다.

(마) 큰상 및 공상 안주상

최영장군 別相장군 및 亡者를 위한 床으로서 오늘의 祭物의 주축을 이루는 床이다. 이 床은 원래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큰상 공상 안주상인 3개의 床으로 형성되어 큰상(장군상 망제상이라고도 함)에는 팔편과 果物을 위주로, 공상은 油密果를 중심으로, 안주床은 술안주를 위주로 陳設하는 것이 특징이나 그림 13~16에서 공상이 빠진 것은 경비관계를 祭物이 적기 때문에 공상의 유과를 줄여 다섯가지 정도로서 큰상에 곁들였다. 主祭物을 中心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5)

① 수팔년꽃(水波蓮)

조화로 만든 연꽃과 모란꽃으로서 다분히 佛敎의 색채가 짙은 꽃이다. 조계사 49祭 관찰도중 祭物 주위에



사진 15. 큰床 및 공床, 안주床

이 숫팔넛꽃과 똑같은 꽃이 있어(연꽃 모란꽃)이 있어 좋은 비교가 되었다. 이 숫팔넛꽃은 宮中床차림의 영향을 받아 생긴것도 같다. 李朝 郊慶殿進爵整禮儀軌 殿內進儀圖를 보면 20:269-270 각 음식위에 꽃들이 다 꽃혀있어 그 호화로움을 짐작케 해 주는데 그 꽃의 種類는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 지역의 巫俗이 宮中의 것을 많이 흡수함에 비추어 추측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숫팔넛 꽃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祭堂의 대부분의 主祭者들은 “부처님은 연꽃 주위에 계시는 분으로 이 꽃을 놓는 이유는 부디 亡者님 천국에 올라가 꽃의 주위에 계시라는 意味”라 함으로서 佛家연꽃사상의 糺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꽃에는 동자가 둘이 앉아 있는데 이를 “밀동자”라 불렀다. 右側의 童子는 善을 상징하고 左側의 童子는 惡을 상징하였다. 즉 꽃속에 善惡이 공존해 있는 셈이다. 사진상에는 넛동이 숫팔넛꽃 위에 없어 있어 꽃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으나 巫堂內歷의 숫팔넛꽃에도 역시 “밀동자”가 둘이 앉아 있었다.

② 넛중이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양과 형태를 韓紙에 오려 죽은 亡者의 넛을 상징한 것으로서 指路鬼국의 도중 부정치고 나서 넛중이를 올려 놓는다. 이는 亡者의 넛이 오셨다는 표정적 상징이다.

③ 팔편

크기는 폭이 20cm 길이 40cm 높이 46cm의 직사각기둥의 형태를 이룬 계피팔고물편으로 이 크기는 그림 13~16이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팔의 붉은 색은 흔히 민속적色으로서 陽으로 觀念되어 禳鬼로 사용되어 흔히 告祀에 시루떡을 설상해 잡귀를 제거하는 目的이나 또는 동지날 팔죽을 먹음으로서 잡귀를 제거하는 등, 米에 팔을 가함으로서 民俗的인 떡으로서의 시루떡의 의미도 크다. 그러나 이 餅에 사용한 팔은 검은팔을 계피하여 색깔을 희게 함으로서 鬼神이 좋아하게끔 만들었다는데 흥미가 있다. (佛家の 祭床에 설상되는 모든 팔편이 해당됨) 그것은 붉은색은 陽으로 鬼神이 싫어하는 色이고 흰색은 陰으로 鬼神이 좋아하는 色이다.<sup>4:89</sup> 陰陽에 관한 이러한 意識은 북 獨 金の 三神으로서 빛을 주고 열을 주고 광명을 주는 관념으로서 이미 上古時代부터 형성되었다고<sup>10:118</sup> 하였거니와 이러한 광명 열 빛은 鬼神이 싫어하며 따라서 赤豆가 붉은 색으로서 이미 古代人의 관념에 형성되어 그후 漢代의 儒學者인 董仲舒의 陰陽五行의인 天을 흡수함으로써부터 발생한 上古時代때부터의 思想이기도 한데<sup>10:153</sup> 이러한 思想을 韓國的 民俗의 기초 觀念으로 陰陽五行의 으로 풀이함으로써 韓國的 意識 構造가 되었다. 이러한 陰陽五行의 意識構造를 간략하게 圖示하면 그림 18과

방 위	色	陰 陽	五 行	계 절
東	青	陽	木	春
西	白	陰	金	秋
南	赤	陽	火	夏
北	黑	陰	水	冬
中央	黃	中	土	9: 118-119 48-49

그림 18.

같다. 즉 靑과 赤은 陽이고 白과 黑은 陰이며 黃은 中이다. 이와같은 다섯가지 民俗的 色은 그간 관찰한 巫佛儒의 祭음식에 있어서 색깔면에서 볼때 靑 白 赤 黑 黃의 色의 범주 內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儒敎의 陰陽五行이 韓國土俗意識化하여 敎를 초월한 意識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며 巫祭物에 있어서 이러한 다섯가지 色 觀念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또한 이 계피팔편이다. 이 편은 심검추편 풀편 계피팔고물편으로서 3色(靑赤白)이며 花煎은 흰색, 옷기는 白靑黃赤이고 주악은 赤白靑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림 19)

계피팔고물편 : 백미를 가루로하여 계피된 검정팔을 고물로하여 시루에 쪄것.

풀편 : 계피팔편에 붉은 설탕을 넣어 색을 붉게함

심검추편 : 계피팔고물편에 심검추가루를 넣어 색깔을 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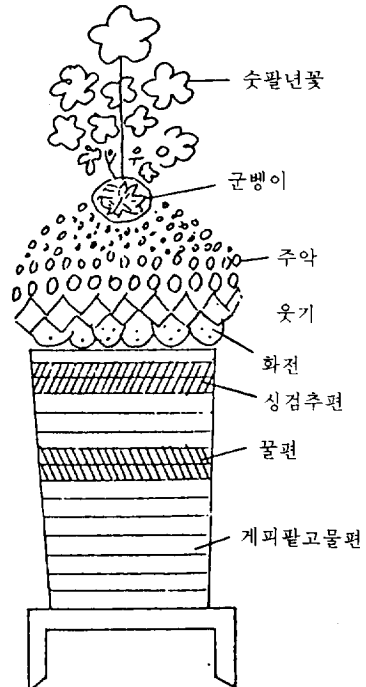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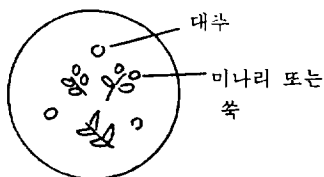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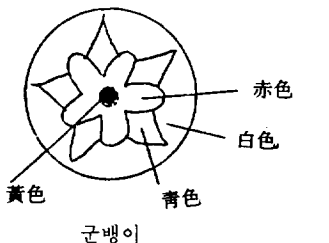
그림 19.

花煎: 참쌀을 익반죽하여 지름 10cm 크기의 원으로 만들어 기름에 지진것으로 대추, 쑥(미나리로도 사용)으로 장식한 일종의 지짐 참쌀떡이다. 일반적으로 백미와 쌀을 위주로 한 餅에(대감상의 팔편은 제외) 이 화전을 얹었다. 재미있는 현상은 그림 13~16의 어떤 花煎도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花煎에 장식한 대추의 赤色과 쑥 또는 미나리의 青色은 陽으로서 鬼神이 두려워하는 색이다.<sup>4,89</sup> 즉 성스러운 祭物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로, 加害者格인 잡귀의 發動을 억제하기 위한 색이던가,<sup>4,90-102</sup> 花煎자체가 흰색 즉 陰인고로 儒學人들의 관념대로 陰과 陽의 조화를 이룬 이 花煎을 망제님, 上山님, 別相님들이 잡수시고 만물의 생성을 이루게 하여 주십사고<sup>12,404</sup> 원하는 祭주관자의 祈願에 意味가 있던가, 李朝 때부터 섬기어 온 東西南北 五方帝神인 靑帝神, 白帝神, 赤帝神, 黑帝神, 黃帝神을 섬기는 표상으로서 이러한 색을 썼던가,<sup>10,153</sup> 현 祭주관자의 말대로 옛날부터 해왔던 慣習에 의하던가 간에 어쨌든 충분히 연구할 과제이다(그림 20).

옷기: 참쌀을 赤色, 青色, 黃色으로 물을 들어 그 위에 석이버섯, 대추, 밤으로 장식하여 사방 5cm되게 정사각형으로 잘는 것으로 赤色은 맨드라미나 송기로 물을 드리고 青色은 쑥으로 黃色은 치자로 물 들인것.

주악: 맷살로 赤, 靑, 黃, 百의 색깔을 내어 송편만 한 크기로 빚어 기름에 지진다음 꿀에 쟀것.

군뱅이: 지름 15cm 되게 참쌀을 원으로 만든 후 위에 靑, 赤, 黃色인 참쌀떡 장식한 것으로(그림 20) 李芝山氏에 의하면 이 餅은 指路鬼床차림 때만 쓴다고 하며 꽃밑에 있는 벌레를 상징하기 때문에 군뱅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함으로서 숫팔년꽃, 군뱅이, 亡者와의 관계를 암시해 주기도 하는 餅이다. 즉 군뱅이는 땅속



花煎  
그림 20.

에서 생활하는 벌레로, 잠시 바깥에 나오게 되는데 指路鬼 時, 亡者도 잠시 오셨다가 다시바로 군뱅이와 亡者를 同格으로 상징하여 陳設된 物目이다.

④ 질방

망제님 上山님 別相님이 오셔서 獻物을 이 질방으로 짚어지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음식으로, 現 巫歌에도 “많이먹고 이러니 말이없구 저리니 탈이없어 오늘은 고픈배 불러구 마른목 적서가구 진거든 먹구가구 마른것은 싸서가지구서 질방걸어 지구가구 어영산은 따리받쳐 이구가구 동자영산은 오질앞에 싸가지구 인정반구 노자반구 존대루 천도를 허손이다”라 한다. 이 음식은 주로 마른음식을 짚어지는 끈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식품으로서 土俗의 觀念을 나타내주는 음식이다. 식품의 형태는 宮中飲食의 “차수과”와 같은 형태로 만들되 흰색과 붉은색의 물을 들어 길이 5.5cm 너비 3cm의 크기로 싹배모양으로 돌돌말아 기름에 튀겨낸 것으로 흥미있는 事實은 奉元寺 49祭床의 設床에도 반듯이 들어가는 식품으로, 巫佛의 褶合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짚어지는 끈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흰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보아 陰陽의 관념外에 巫歌에 “당세님 가지다가 맨드라미, 채송화, 봉선화 밭에 머뭇거리지 말고 넓고도 밝은 길로 가소서”가 있다. 神은 色彩의 조화에도 눈을 많이 뜨는 모양이다.

⑤ 산적

소고기를 다져서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구운것으로, 이것은 안주중에서도 大안주로 통한다. 웃고명용으로 가운데 싹고추, 동쪽에 달걀노른자 채친것, 서쪽에 낫갈퀴자 채친것을 장식하는데 이는 宮中飲食이나 士大夫家의 음식의 영향이다. 이 산적은 儒敎食物의 형태로서 古禮의 設床의 형태의 범주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며 儒敎祭床의 設床의 영향이다. 現 別相거리 巫歌에도 “소잡어 설파하고 원소머리것을 잡아 받으시구, 큰소는 허리찍어 받으시구, 작은소 콩지찍어 받으시구, 대양분에 갈비찜에, 소양분 영계찜에, 네에가서 慈心 많이 받으시던 내별상님 아니시라...”라 있듯이 이 산적은 勝負 위주로 設相되었던 것이 점차 간소화 儒式化로 대신하여 졌던 것이다. 李芝山氏에 의하여 제공받은 指路鬼의 전형적 相차림중 이 안주상의 設相에 있어서 산적 대신 갈비찜을 씌운 巫歌에도 나타나듯이 豚, 소머리, 돼지머리, 갈비찜의 順으로 경비의 다소에 따라 달라진다. 대감床의 豚은 그 성질상 財와 관계있다면 안주상의 豚은 신성한 供物로서 그 意義가 있거니와 任東權 교수는 豚중에서도 돼지를 祭物로 바치는 이유에 대해 부정이 없는 動物의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sup>4,338</sup>

李芝山氏로부터 提供받은 큰상(上山床, 別相床, 亡者床)의 物目を 보면 現在의 큰 상과 별차이가 없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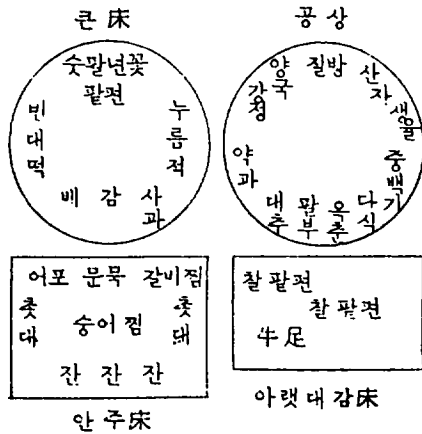


그림 21.

데(李芝山氏에 의하여 提供받은 床은 적어도 20년前의 陳設이라고 함, 그림 21) 약간의 차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變化된 物目の 간략화 현상이다. 그림 21의 物目中 現在 陳設되지 않는 物目を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魚포: 재료는 문어포와 홍합포를 중심으로 한다하며 문어발을 길이 15cm되게 꼬챙이에 끼어 폭이 5cm되게 하고 홍합을 길이 15cm되게 꼬챙이에 끼다음 문어 낱것과 홍합 낱것을 각각 돌려가면서 담는다.

문묵: 두부를 으개어 양념한 후 계란모양으로 동그랗게 빚는다음(달걀크기라 함) 그 위에 달걀로 옷을 입혀 기름에 지진후 숙전복으로 위를 싣다고 함으로서 民俗的 意識을 보여주는 데 원래 달걀은 “박혁거세” 神話에서도 나타나듯이 民俗的 食物이기도 하다. 문묵의 재료를 살펴보면 두부는 地의 食物이고 전복은 海의 食物이며 이것을 재료로 달걀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生産的 意味도 생각해 하는 데 즉 韓國原始的 觀念上에 의하면 地 즉 土는 살이며 海 즉 水는 피로서 살과 피가 만남은 生産을 의미하는 바로서 죽은이로부터(또는 神)의 生産的 보상과 관련지어 생각된다. 이것은 두부의 도입시기를 唐代<sup>29:149,151,156,168</sup>로 볼 때 이러한 民俗的 祭物觀의 形成은 가능하다.

송어찜\*: 송어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살기 때문에 指路鬼床에만 쓰이는 獻物이라고 하는데 곧 강은 이승, 바다는 저승을 상징하고 이승과 저승의 만나는 지점에 亡者가 계시다고 보는 觀念에 의하여 形成된 獻物로서 송어 등을 7번 칼로 저며 찜을 만든다 하였다. 즉 송어란 안주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亡者가 드실 수 있다는 土俗的 觀念에 의하여 形成된 獻物이다.

以上 李芝山氏의 제공을 중심으로하여 現床의 祭物에

서 보이지 않는 어포, 문묵, 송어찜을 기술하였다. 前記하였듯이 이와같은 物目は 적어도 20년前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바 現床인 그림 12~16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巫祭食物文化의 淘汰현상이며 李朝宮中발기상에 各種 魚類와 더불어 전복, 문어, 홍합이 많이 보이는 것도 여기에 기재된 송어, 문묵, 어포를 中心으로 하여 고찰해 볼 때 한국土俗祭物에 대한 보다 깊은 理解를 부여한다 하겠다.

(바) 것상

3代의 祖上님을 위한 상으로 그림16의 것상은 10분을 위한 床이라 한다. 것상의 형태는 큰상(망제상, 별상상, 上山상)과 유사하나 다만 그 獻物에 있어서 큰床보다는 下位에 속하므로 안주床이 없고 편떡, 果物, 油果類가 큰상에 비하여 작을 뿐이다(사진 16).

(사) 아랫대감상(外대감床)

웃대감과 동일하다. 外대감인 고로 牛足은 뒷발을 놓는다(사진 16).

(아) 사재상(使者床)

亡者를 冥府世界로 데리고 갈 使者들을 위한 床으로서 사재床과 뒷전床은 문앞에다 놓는것이 특징이다. 현물은 과일 1器, 팔면 1器, 유과 1器, 탁주 1器이다. 李芝山氏의 제보에 의한 使者床의 獻物은 삼색과일 1器, 팔면 3器, 유과 1器, 탁주 1器로서 음식의 종류와 진설법은 유사하다(사진 17).



사진 16. 것상 및 아랫대감상

\* 祭時使用하는 생선은 반듯이 비늘이 있어야 된다 한다.



사진 17. 뒷전床 및 使者床

(자) 뒷전床

굿을 마치고 이름없는 잡귀신 및 조상굿 時에 미쳐 들어오지 못한 神을 먹여 보내는 床으로서 초상중 퍼진 상문(巫家에서의 표현임)과 가족에 혹 침해될 액을 막는 뜻이 있다. 그 獻物을 보면 보다 民俗的으로 종류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사진 17).

① 북어 6마리

안주상의 炙이나 牲이 上位의 神께 바치는 獻物이라면 북어는 下位의 神께 바치는 獻物이다. 고사지낼 때 북어 1마리를 쓴다던가, 걸림神\* 6마리를 드린다던가, 대감床에 牛頭나 牛足を 쓸 형편이 안될 때 대신 북어를 쓴다던가, 또는 병이 들었을 때 逐鬼를 위하여 북어 1마리에는 손톱을 넣고 1마리에는 머리카락을 넣고 1마리에는 生年月日을 적은 종이를 넣어 습 3마리를 病鬼에게 줌으로서 鬼神을 쫓든가 등으로 祭時의 北魚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다.

指路鬼굿 뒷전에서 북어는 북어에다 날고기를 넣어 상문을 푸는 意味로 쓰이는 것이며 갯수가 3마리임은 上代鬼, 中代鬼, 後代鬼의 神을 위한 3마리로서 雜鬼神의 3代奉祀가 뒷전에서도 이루어지는 셈이다. 북어는 마른밥 반찬으로서 조기와 함께 좋은 찬거리중의 하나라 하고 있거니와<sup>30:274</sup> “진것은 먹구가구 마른것은 싸가 지구서 질방걸어 지구가구”와 같이 床차림에 있어서도 魚포중 특히 北魚는 흔한 밥반찬으로서 鬼神이 지고가는 重要한 찬거리중의 하나다. 사진상(사진 17)에 북어가 6마리임은 2인의 亡者를 위한 指路鬼굿이었기 때문이며 원래는 3마리를 놓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수, 팥, 좁쌀 볶은것(잡밥)

수수, 팥, 좁쌀을 볶아서 쓰는 이유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볶아치던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잡귀들이 이 볶아치던 것을 가지고 가라는 뜻이다.

시 점	炙	간	飯
	나 박 김 치	배 추 김 치	칼 치 조 림
4	北魚脯	녹두지김 나물	며루치볶음

그림 22. 상식床

③ 달걀 3개

달걀은 깨지면 터진다. 厄은 깨트려 터트려야 한다. 뒷전의 祭次時 달걀을 앞쪽에다 던져 깨치는데 즉 달걀은 厄을 쫓는 의미인 破厄의 意味가 이다. 사진상에 달걀이 6개의 것은 北魚와 같은 意味이다.

④ 가족옷(의련)

미래에 사람에게 다칠 나쁜운수 불행을(이경우 사람은 상제에 해당됨) 사람을 대신하여 鬼神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라는 代數代命

(차) 상식床

돌아가신 亡者가 극락에 가시기 前에 마지막 받는 床으로서 상식을 드릴 때는 안주床을 옆으로 밀고 상식床을 대신 놓는다. 床차림은 그림 22와 같으나 李芝山氏에 의하면 20年前만 하더라도 칠첩반상을 썼다 하였다. 그 物目を 보면 안주床보다 훨씬 現實的이고 儒敎의이다. 羹의 材料는 소고기, 두부, 무우를 넣고 끓인 국이다.

(카) 祭器類

높이 6cm, 지름 15cm의 굽이 달린 접시형태의 복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나 큰床 및 깃床의 계피판편을 위한 祭器는 높이 10cm, 세로 20cm, 가로 25cm의 각진 祭器를 使用하였다.

(타) 床類

일반적으로 시왕상은 각반, 그밖의 큰상, 것상, 공상은 원반을 사용하였고 시왕상인각반의 높이가 가장 높았다. 즉 床에서도 上下가 있었다.

V. 結 論

現 韓國의 宗教文化는 적어도 3가지 종교적 유형으로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즉 佛敎, 儒敎, 原始信仰이 그것이다.

韓國의 原始信仰은 B.C 2333年 檀君이 朝鮮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長久한 歷史

\* 걸림神: 帝釋, 성주, 大監의 앞 下神으로 財福神(아화걸림, 리밀어지신걸림, 안당으로 제석걸림)

만신몸주대신걸림, 삼당걸림, 제당걸림, 치어당어성주걸림, 내

를 지니고 있거니와, 上代의 原始信仰은 Animism을 기초로 한 思想的 배경속에서 玉以下 一般백성에 이르기까지 성행을 보게되어 巫堂이 곧 神 또는 王 그 자체가 되어 굿의 형식으로 일관되었다. 이러한 社會의 배경속에 佛敎가 A. D. 372年 고구려에 처음 전래되면서 三國全體에 파급되었고 原始信仰의 바탕위에 있는 韓國國民의 정신적 구조위에서 高級宗教로서 佛敎는 그 布敎에 적지않은 土着化현상을 일으켜 原始信仰意識의 褶合과 더불어 鬼靈觀을 형성시켜 祭祀라는 과정을 통하여 鬼神을 모시는 것과 같은 原始信仰과 어느정도 相通되는 宗教로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原始信仰역시 佛敎로부터 많은 것을 褶合,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고려 中末期부터 점차 儒敎가 제 1의 宗教로 군림하여 드디어 李朝 太宗은 모든 禮를 朱子家禮에 의하여 실시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儒敎는 李朝 500年間 最上의 宗教로 군림하고 아울러 巫俗 佛敎가 배척당함으로써 완전 儒敎化 정책을 펴나갔으나, 文化的 轉位에 의한 구조속에서 儒敎역시 韓國의 儒敎로 土着化되었으며 佛敎 巫俗信仰역시 李朝 500年間 儒敎라는 敎 밑에서 陰으로 陽으로 儒敎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社會의 구조속에 있었다.

따라서 근세인의 信仰意識은 巫佛儒의 複合意識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土着化的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 巫佛儒는 同一 鬼靈觀을 파생하여 信仰儀禮中 일률적으로 祭祀라는 儀式이 파생되었으며 複合信仰意識은 祭祀를 통해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韓國國民의 祭祀觀은 孝와 관련되어 형성되고 아울러 鬼神으로부터의 보상과도 관련되어져 祭祀時의 最大의 음식대접은 最上의 孝 및 보상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祭祀食物文化는 “最上의 대접”이라는 관념과 관련되어져 그 사회의 生活程度 및 食物文化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주는 요소도 되고 있다. 現存하는 祭床차림은 古代로부터의 傳來를 바탕으로 하고 다시 他文化와의 강한 褶合現像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서울지방의 巫俗信仰에 의한 祭床차림은 시왕床, 使者床, 帝釋床 등 床의 명칭과 또한 佛家와 관계되는 床의 陳設 物目は 完全히 불교적인점, 그리고 숫팔년꽃 등 褶合은 아주 적극적이다.

佛敎로부터의 褶合狀態는 常食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며 紅東白西, 祭物을 角이지게 함으로서 陰陽觀念을 나타낸점, 안주床의 灸 및 잔, 상식床의 陳設 등 역시 상당한 褶合現像을 보여주고 있다.

巫俗信仰의 佛敎, 儒敎로부터 多樣性있는 褶合은 상당히 적극적인 土着化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多樣性있는 褶合의 확립은 문헌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적어도 蘭谷의 巫堂內歷에 의하면 李朝初期

를 보아지고 따라서 現 國師堂의 巫祭 床차림의 食物文化 확립은 李朝初期로서 國師堂의 設床은 歷史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祭祀床차림의 褶合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크게 作用하는 要素로서 同一鬼靈觀의 형성에 의한 鬼神의 대접 및 대접을 받음으로서 좋은데로 간다는 觀念, 아울러 鬼神이 좋은데로 가셔야만 子孫이 평화롭게 잘 살수있다는 孝 및 보상의 관념에 의한 것이며 이와같은 鬼神을 받드는 意識은 巫佛儒가 한결같이 굽이높은 祭器로 음식을 차린다는 사실로서도 설명된다.

### 참고문헌

1. 任東權; 韓國原始宗教史, 韓國文化史大系V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2. 朴柱弘; 近世人的 巫俗信仰思想에 對한 考察, 石宙善 教授 回甲紀念民俗學論叢, 서울通文館, 1971.
3. 崔吉城; 民間信仰, 韓國의 風俗上, 文化財管理局, 1970.
4. 任東權; 韓國民俗學論考, 宣明文化社, 1973.
5. 穗積陳重; 祭祀及禮と法律, 東京: 春秋社, 1928.
6. 姜燕熙; 朝鮮後期社會에 있어서 西學의 祖上祭祀問題,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3.
7. 李弘植; 國史大事典, 서울: 百萬社, 1973.
8. 孫普泰;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서울: 을유문화사, 1974.
9. 黃慶煥; 朝鮮王朝祭祀, 文化財管理局, 1967.
10. 金敬琢; 韓國原始宗教史, 韓國文化史大系V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11. 徐廷範; 新羅天馬圖, 경향신문, 1974年 8月 23日.
12. 成樂燾; 韓國儒敎史, 韓國文化史大系V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13. 朱在用; 先儒의 天主思想과 祭祀問題, 서울: 경향잡지사, 1958.
14. 玄容駿; 제주도의 儀式部落祭, 石宙善教授 回甲紀念民俗學論叢, 서울: 通文館, 1971.
15. 洪潤植; 佛敎民俗, 韓國民俗綜合報告書 2冊, 文化財管理局, 1969.
16. 安啓賢; 韓國佛敎史, 韓國文化史大系V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17. 洪春美; 家庭儀禮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 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0.
18. 張壽根; 部落 및 家庭信仰, 韓國民俗綜合報告書 第1冊, 文化財管理局, 1969.
19. 金宅圭; 韓國部落慣習史, 韓國文化史大系I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20. 尹瑞石; 韓國食品史, 韓國文化史大系I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21. 尹瑞石：朝鮮時代食品의 研究，中央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1972.
22. 泉靖一：巫堂內歷，東洋文化 46, 47, 東京：東京大學出版會，1969.
23. 崔吉城：宮中巫俗資料，韓國民俗學2, 1970.
24. 蘭 谷：巫堂內歷.
25. 崔吉城：韓末의 宮中巫俗，韓國民俗學3, 1970.
26. 金用淑：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1970.
27. 金泰坤，金淇洙，金千興，成慶麟，서울地域의 巫俗，文化財管理局，1971.
28. 李杜鉉，楊州巫堂，東洋文化 46, 47, 東京：東京大學 出版會，1969.
29. 崔南善：朝鮮常識.
30. 李乙浩，儒佛道，韓國民俗綜合報告書 第1冊，文化財管理局，1969.